



총지종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옴마니반메움을 본존으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표방한 재가종단입니다.

# 총지종보

富할수록 더욱 勤勉하고 布施해야 하며 지위가 높을수록 謙下해야 할 것이며 실천하자면 남의 허물을 보지 말아야 하며 善을 행해도 고 자세는 아니 되며 實다위도 虛한 것같이 해야 하며 있어도 없는 것 같이 해야 하며 알아도 모르는 것 같이 해야 한다.  
(宗祖法集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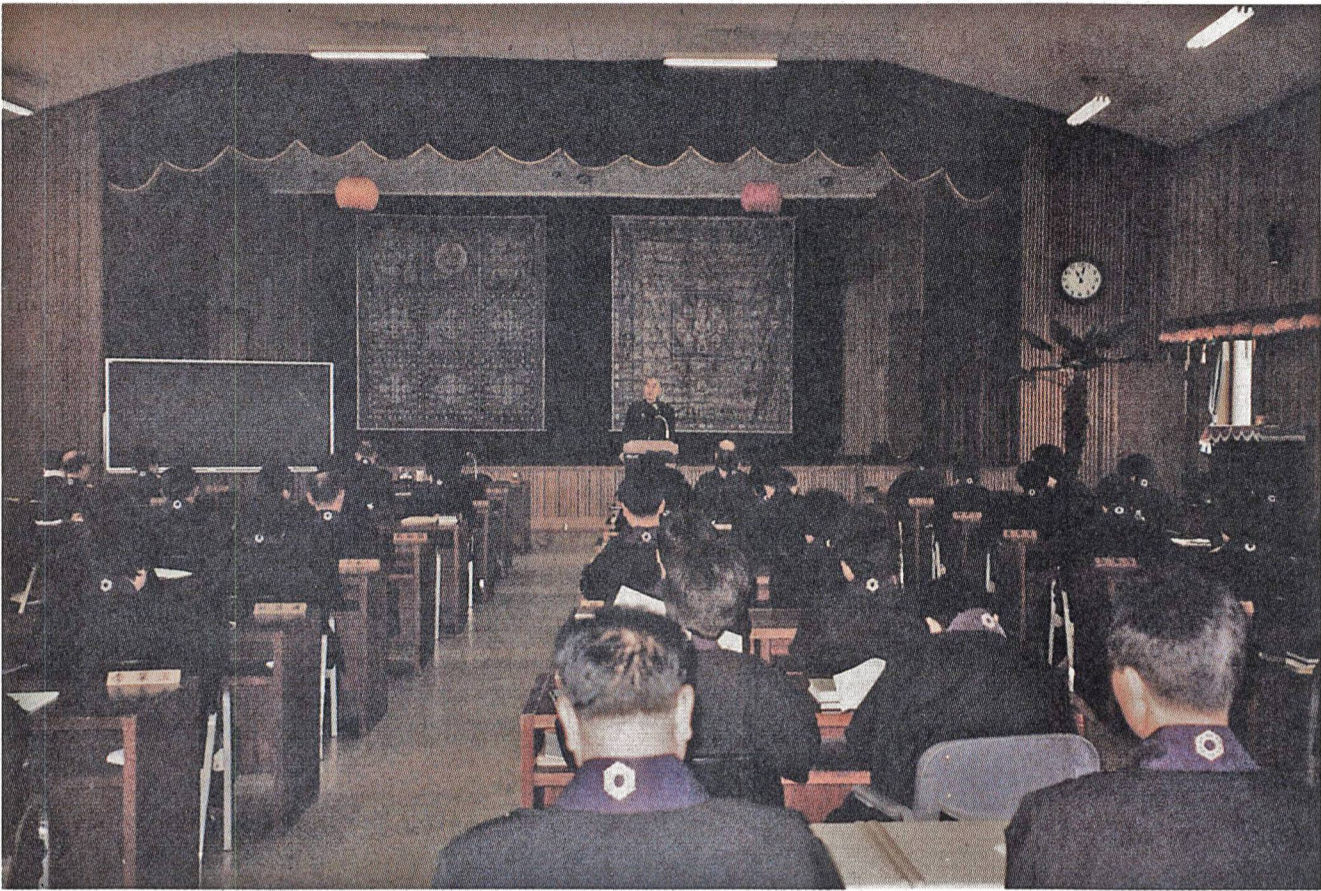
발행인: 총지회 편집주간: 지성 편집인: 황익수 인쇄인: 김규식

www.chongji.or.kr

제18호 총기 29(2000)년 12월 1일 금요일 구독신청: (02)552-1081

## 제56회 추기강공 원만회향

### 총기 29년 추가경정 예산심의 및 30년 수·지 예산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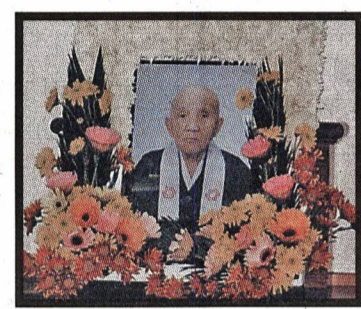
총의회에서 종단의 산적한 문제 및 교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56회 강공을 주재하고 있는 총령님

정도로 교화방법의 현대화와 다양화를 모색하고 총지종단의 교상과 사상을 탄탄히 하여 종지를 바로 세우고 대중교화에 박차를 가하자고 말씀하셨다.

▶관련기사 3면



묘회심지수님 행장

경북 영일군 기계면 1910년 11월 15일 출생  
총기 1년 12월 전수승서  
총기 2년 6월 한국선교부 주교 임명  
총기 2년 6월 종의원  
총기 8년 10월 대전수승서  
총기 8년 지수승서  
총기 10년 4월 기로원 진원

제56회 추기강공이 지난 10월25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2박 3일의 일정으로 시작되어 원만하게 회향되었다.  
전국 스승님이 전부 모인 가운데 시작된 56회 추기강공 중 열린 67회 중앙총회의 회에서는 총기 29년 통리원 추가경정 수·지 예산심의, 전당건설 추가경정 수·지 예산심의, 2000년 (재)불교총지종 유지재단 추가경정 수·지 예산심의, 총기 30년 통리원 수입 지출 예산 심의, 총기 30년 전당건설 수·지 예산 심의, 2001년 (재) 불교총지종 유지재단 수·지 예산을 논의하고 심사하여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또한 93회 승단총회에서는 지성 총무부장의 99년 승단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가 있었으며, 창종 30년을 맞이하여 총지종의 종단발전과 교화방법, 의식, 의례, 종헌, 종법 등 종단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스승님들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교화방법과 의식의 정비 및 종단의 복지 향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  
특히 특정 종령님은 승단 창종 때의 어려움을 진언연승으로 극복하였듯이 전교도들이 일치단결 화합하여 제2창종의 심

## 묘회심지수님 11월 7일 오후 열반

우리 종단 창종 당시부터 진언행자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주셨던 원로스승 묘회심지수님께서 총기29년 11월 7일 오후 3시 30분에 92년간의 세연을 다하시고 열반에 드셨다.  
묘회심 지수님께서 평생 증생교화와 전법의 일선에서 진언연승의 공덕을 널리 퍼셨던 분이로서 현 경주 수계사의 전신 현곡선교부를 1982년 개원하여 주교의

소임을 맡으신 이래 종의원을 거쳐 대전수승의 품계에 오르셨고 89년에 여성승직자로서는 최고의 품계인 지수로 승서하셨다.  
1991년 교화 일선에서 퇴임하여 원로스승님을 모시는 기로원에 진원하여서도 늘 초발심과 청정한 마음을 잃지 않아 참다운 진언행자로서 종단의 스승과 교도에게 큰 감명을 주셨던 묘회심지수님께서 마지막 입멸의 순간까지 온화한 모습으로 영승

의 심심미묘한 위신력을 굳게 지키려는 말씀을 후학들에게 남기셨다.  
묘회심 지수님의 열반을 맞아 통리원은 종헌의 규정에 따라 곧바로 기로원장으로 치루 장례위원회(위원장 특경 종헌, 집행위원장 지성, 고문 효강·정암·경관·총지화)를 구성, 지난 11월 14일 오전 10시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강남시립병원에서 발인하였다.



▲이승을 만져먹고...다비장으로 향하는 묘회심 지수님

## 육자진언이 궁에 진언인가, KBS시청률 올리기 위한 수단인가

KBS 대하드라마 '태조왕건' 11월 11, 18, 19일 방영분을 보고 두 가지 의문이 있어 고충하고자 한다.  
첫째, 우주의 언어, 생명의 언어라 신행하는 관자재 보살미묘본심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움'이 '궁에의 진언'으로 오인, 흑세무민하는 진언으로 왜곡, 강력한 통치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육자진언을 잘

모르는 이로 하여금 불교를 잘못 이해하거나 총지종을 잘못 이해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둘째, KBS 대하드라마는 국영방송이며 위성을 통하여 외국에까지 방송되므로 그 영향은 실로 크다 할 것이다. 이러한 방송국에서 역사적 사실을 고증도 하지 않고 역사극을 방송한다는 것에 실망하여 육자진언 신앙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니 담당자가, PD는 참고하여 주었으면 한다.  
육자진언 신앙은 관자재보살미묘본심육자대명왕진언, 미묘본심육자대명왕진언, 육자대명왕진언 등으로

일관고 그 유래를 보면  
① 티베트 육자 신앙 : 육자진언이 전래된 것은 전설적으로 4세기로 되어있으나, 실증적인 면에서는 불교가 전래된 7세기 중엽 이후로서 지금처럼 국민적 신앙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0세기 이후로 본다.  
② 중국의 육자 신앙 : 문헌상으로 대승장엄보왕경이 번역된 10세기 말부터 육자진언 신앙이 크게 성하게 되었다. 특히 당말에서 송대에 이르는 시기에는 서민들의 하층사회에서 다니니 신앙이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③ 한국의 육자 신앙 : 육자진언이 전래된 것은 경전 도입상 고려초로 볼 수 있다. 대승장엄보왕경이 10세기 말에 번역되었는데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남아 있는 최고의 문헌인 고려대장경에 있다. 그러나 고려초 조장경이 간행되어 입당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보면 보왕경의 전래는 11세기 초에서 말까지 전래되었다고 보며 이때 육자진언 신앙도 수용되었다고 여겨진다. 이 진언 신앙이 조선조에서는 진언의계집에 단편적인 기록이 보이며 불구 등의 불교문화재 유물에 육자진언이 새겨져 있어 육자진언 신앙이 광범위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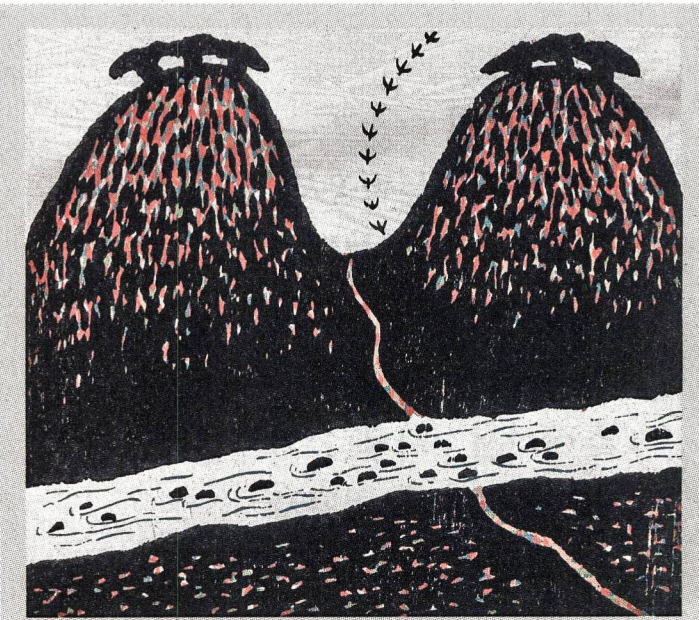
### 1교도 10부 총지종보 선전합니다

총지종보는 여러 교도분들의 것입니다.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총지종을 포교하는데 적극적으로 이용되길 바랍니다.

유פו되어 일반서민들의 귀의처가 되었다.  
궁에는 신라 제47대 헌안왕 또는 제48대 경문왕의 아들로 후고구려를 건국, 왕으로 제위한 시기가 서기 901~918년임을 보면 현재 KBS에서 방송중인 부분을 역사적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편집부

## 옛인연

강행복 (글·판화)



우리 동네 전남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는 불출산이라는 낮은 산이 있다. 산에 오르면 왼편에는 무등산이, 오른편으로는 광주시내가 눈앞에 활짝 펼쳐진다. 그렇다고 산이 높지도 않고 야트막하고 편안해서 새벽녘이면 들 산객들로 붐빈다. 지금은 약수가 말랐지만 4년 전에는 약수터가 3개 정도 있어 여름에는 자주 물을 뜨러 다니곤 했다. 이 산에는 다람쥐, 청설모, 꿩, 족제비 등이 있고, 특히 고슴도치는 여려만 만났다. 고슴도치는 야행성이라 그런지 밤 12시가 넘어서 갔을 때만 만났다.

나는 아내와 함께 불출산 밑에 있는 대각사(조계종)에 기도하러 자주 다닌다. 아주 작은 절이지만 이쁘게 자리잡고 있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절이다. 우리 집에서 절을 갈 때는 동네를 지나서 가는 길과 발길을 지나서 가는 길, 두 갈래가 있다. 발길로 갈 때는 연꽃과 수련이 피는 논이 있어 한참을 구경하다가 가곤 했다. 또 이곳을 지나면 늪지가 있고 어느 집 담에는 탱자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있어 가을에는 탱자향이 코를 찌른다. 특히나 절 주변은 나무가 무성해 절에 들 때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를 실감나게 느낄 수 있다.

나는 작업을 하다가 마음이 우울할 때면 운동도 할 겸해서 아침저녁으로 대각사를 찾는다. 올해 7월경에는 대각사에 다녀오면서 발길을 이용하게 되었다. 여름이라 그런지 풀이 무성해서 발길은 아주 좁아 보였다. 늪지를 가는 도중 돌멩이 한 개가 문득 눈에 띄는데 한눈에도 예사물이 아닌 것 같아 얼른 집어들었다. 아마도 발을 올리는 분이 밭에서 골라내어 던져놓은 것 같았다. 집에 와서 자세히 살펴보니 돌멩이는 5x14x3cm로 사방 모서리가 잘 다듬어져 있었다. 손으로 잡아보면 손에 쏘옥 들어올 수 있도록 손에 잡히는 자국까지 패어 있었다. 내 생각에는 옛날 고인들 시대에 무슨 도구로 사용하던 돌인 것 같았다. 그래서 어느 분한테 여쭙 보았더니 돌의 이름은 '쫇기' 라고 하는데 주로 옛집 터에서 발견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아주 먼 옛날에도 사람이 살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돌뿌리에 부딪혀도 억겁의 인연이 있다고 하던데 '이 돌은 전생에 내가 사용하던 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다. 내 손은 당치에 비해 작은 편인데 이 돌이 내 손에 딱 들어 맞으니 그런 생각이 더욱 실감나는 것이었다.

이 곳 광주는 내게 전혀 연고가 없는 곳이며 그전에는 한 번도 들른 적이 없던 곳이다. 그러던 것이 1987년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식구들과 잠시 쉬러 왔다가 아직까지 살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방림동에 살다가 봉선동으로 이사해서 사는 지는 6년쯤 되는 것 같다. 나는 본래 경기도 김포 월곶 태생으로 서울에서 30년이 넘게 살았다. 그러던 것이 올해까지 13년째 광주에서 살고 있으니 아무래도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광주는 내 제 2의 고향이 되었고, 우리 아들, 딸은 본래의 고향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내가 광주에 머무르게 된 사정을 어느 스님에게 말씀 드렸더니 옛 인연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 거라고 귀뜸해 주시는 것이었다.

광주에 와서 처음에는 무등산을 많이 다녔고 조금씩 불교 서적을 보다가 본격적으로 불교를 접하게 되었다. 그래서 불교관화를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판화작가의 길을 걷고 있다. 요즘에는 범위를 넓혀서 자연, 생명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불교를 알면 알수록 모든 것이 다 불교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제는 점점 내 작업의 범위가 넓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요즘에도 작업 등등의 일로 해서 서울을 자주 다녀오는데 서울에 가면 3일을 못 버티고 내려오게 되고 만다.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오는 도중에 호남터널을 지나서야 마음이 편해진다. 이제 나이들어 불교와 함께 광주에서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광주와의 옛인연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설

청소년 포교는 제2의 창종

청소년은 앞으로의 세상을 이끌어 나갈 주인공들이다. 청소년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한 개인의 앞날의 인생이 좌우되며, 크게는 그들이 속한 단체나 사회 혹은 국가의 미래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처한 청소년들의 종교 또한 그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며 나아가서는 사회와 국가 전반에도 영향을 끼치게 됨은 말할 것도 없다. 이 세상에는 실로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불교는 이제 인류의 보편적 진리를 구현하는 참된 종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특히 합리적인 사유를 추구하는 구미의 철학자나 사상가들이 이제는 유일신 사상의 기나긴 맹신의 터널을 벗어나 불교의 보편 타당한 진리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은 실로 우리 불교로서는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도 말했듯이 "앞으로 인류를 하나로 연결할 유일한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불교이다."라고 한 것처럼 불교의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진리관은 청소년의 정신적 성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청소년들 중 불교를 믿는 청소년의 숫자는 실로 미미하다. 한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 중 기독교와 천주교 신자가 이미 60%에 육박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불자 청소년은 15%를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총지종의 청소년 불자의 수는 실로 미약하기 짝이 없다. 총지종 산하의 학생회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바로 미래의 총지종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총지종 내에서 자성학교, 학생회, 청년회 등 그나마 명맥이라도 유지하고 있는 곳은 정각사를 비롯하여 한 두 군데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것이 오늘날의 총지종 학생회의 모습으로서 실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초창기에는 영남교구 하나만 하더라도 대규모의 체육대회를 개최할 만큼 학생회가 활발하던 시기가 있었다. 이러한 체육대회 이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 간의 우의를 다지고 또한 그러한 활동들이 교세 확장의 일환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학생회에 대한 종단의 무관심과 지원 미비로 학생회가 와해되기에 이르렀다. 종단에서 뒷늦게나마 지도교사제를 도입하여 청소년의 포교활동을 꾀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청소년 포교에 대하여 관심조차 갖고있지 않았던 것이다. 청소년 포교는 결코 단일한 자제로 대처할 일이 아니다. 청소년 포교를 제대로 하려면 종단 집행부와 각 사원의 승직자들의 청소년 포교에 대한 방향이 정립되고 의지가 확고해야 한다.

첫째, 각사원의 주교가 지도교사를 두어서라도 청소년들을 포교해야 된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하며 범종단적인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셋째,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수행이라는 어려운 것에 대하여 거부감이 일어나기 쉽고 견디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들을 쉽게 불문으로 유도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최소한이라도 지켜져야 청소년에 대한 포교를 그나마 기대할 수 있다. 일반인에 대한 교화도 어렵지만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의 포교란 더욱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고 총지종의 미래의 주인공인 이들의 포교에 소홀하다든지 방치해선 안 된다. 이것은 총지종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제 어느덧 내년이면 창기 30년이 된다. 지금까지 자성학교, 학생회, 청년회를 거쳐 승직에까지 오면 사람은 두 사람이 교좌이다. 이제라도 전 종단이 청소년 포교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의 재건을 위하여 힘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그리하여 초창기의 열정적이던 학생회의 불을 새로이 일으키고 이들 청소년들에게 불교의 진리, 특히 밀교의 현실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 주입되어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 불자들의 당연한 의무이다. 많은 청소년들이 총지종 학생회를 통하여 총지종의 종지에 귀의하도록 선도함으로써 이들이 훗날 사회에 나가서도 밀교행자로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종단 내에서도 총지종의 뛰어난 인재로서 활동하게 될 때에 우리 총지종의 미래는 밝게 될 것이며 우리의 구경 서원인 밀엄정도도 하루 빨리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조사

묘회심 지수님은 진언행자의 화현

오호라, 슬프고 슬프도다! 범계의 흔들림 없는 진리를 몸과 뜻과 입으로 밝혀 우리 총지종의 광명성으로 나부셨던 묘회심 지수님이 그 세연을 다하시고 우리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실로 묘회심 지수님이 이 사바세계에 오신 뜻은 혼탁한 중생사회에 참으로 진실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고자 함이었습니다. 또한 시절의 변화에 따라 날로 흐려지지만 하는 부처님 말씀의 진실한 바른 길을 곧추 세우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삼십여년 전 우리 총지종의 종조이신 원정대성사와의 인연을 확인하였고 바로 당신이 이 세계에 오신 원래의 뜻대로 정통밀교종단을 세우시고 그 어린 걸음에 당신의 정성을 바치셨습니다.

아 슬프도다! 불보살의 화현으로 우리 곁에 오셨던 묘회심 지수님은 끝내 저 사리쌍수 아래 남김 없는 열반에 드셨던 석가모니부처님과 같이 우리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인생 자체가 뜬구름처럼 무상하다 하지만 큰별과 같이 우리의 갈길을 밝히셨던 묘회심 지수님의 열반은 너무도 슬프지만 합니다. 이제 누가 그 모습을 닮아 우리를 이끌 것인가.

이제 우리는 묘회심 지수님과 이별에 가질 수 없는 슬픔을 간직하며 아울러 님을 만난 공덕에 지극한 심정으로 경배를 올리고 남게서 보이셨던 진실한 인간의 표본을 그대로 이어받으리라는 다짐을 합니다. 남게서 서원하셨던 정통밀교 종단으로서의 총지종의 발전에 더욱 정진할 것이며 우리 사회를 정법으로 인도할 것이며 나아가 우리의 이 세계를 극락정토로 바꾸는데 신명을 다하리다.

묘회심 지수님이시여, 부디 서방극락정토에 계시면서도 님의 뜻을 이어받은 진언행자들에게 높은 가치력으로 빛을 주소서. 당신의 처음 세우셨던 뜻이 후학들에게 변함없이 이어지도록 경책을 주소서.

거듭 님의 떠나심에 슬픔을 억누르며 합장으로 봉송합니다. 편히 가시옵소서. 음아모카 비로자나 마하무드라 마니반메 지바라 파라 바티야 흠.

총기 29년 11월 14일

묘회심 지수님 열반 불교총지종 기로원장 장의위원장 종령 록정 합장

관음보살의 화신이셨던 묘회심 지수님

자비하신 묘회심 지수님!

생자필멸, 회자정리, 산자는 죽기 마련이고 만나면 헤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영원한 이별을 앞에 두니 눈물이 앞을 가려 할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우리 종단 유일의 출가승으로서 한 평생을 오직 진언 행자로서 모범을 보이시고 관세음보살의 화신인양 자비를 드리우신 묘회심 지수님!

우리 총지종의 창종과 더불어 원정 종조님을 옆에서 모시며 초창기의 그 험난했던 시절을 헤쳐오신 스승님! 오직 음아니반메흠 여섯자의 진언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자비행만을 행하신 스승님! 90의 연세에도 천진한 마음을 잃지 않으시고 언제나 관세음보살의 미소처럼 자애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순수하게 바라보시던 그 눈길을 이제 어디서 다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결같은 진언행자로서 상구보리 화해중생의 종지를 받들고 우리의 무명을 밝혀주셨던 큰 스승님!

이제 저희들은 스승님의 인자한 모습을 더 이상 뵈옵지 못하더라도 스승님이 보여주시던 자비행을 가슴에 새기고 영원히 스승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아무쪼록 극락 정토에 계시더라도 밝은 존령께서 저희들을 굽어살피시고 우리 총지종이 더욱 발전하여 모든 중생의 무명을 밝히는 훌륭한 종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살피 주옵소서. 거저없는 그 실천행을 우리들도 본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스승님은 저 극락정토의 머나먼 길을 떠나시지만 남기신 그 큰 빛은 영원토록 빛나오리다. 묘회심 큰 스승님의 존령에 삼가 작별을 고하옵니다.

음아니반메흠 음아니반메흠 음아니반메흠.

총기 29년 11월 14일

승단대표 장의집행위원장 지성 합장

아미타부처님께 스승님의 왕생극락을 빌며

오호 애재라! 스승님의 열반 앞에, 그 슬픔이 한량없습니다. 우주삼라만상이 만추를 맞이하듯, 어느 날 스승님께서 세수를 다하시어 열반에 드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모두는 슬픔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우리들의 마음 속에 따뜻한 품을 주셨던 스승님의 인자하신 얼굴과 모습은 우리에게 온갖 번뇌와 고민을 여의어 심신을 달래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원당에서도, 사바세계 그 어디에서도 스승님을 다시 뵈옵 수 없으니, 애닦은 정은 마음을 도려내는 듯 합니다. 왜 이리도 허전하고 쓸쓸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영원히 떠나 버리신 스승님을 이제야 와서 이렇게 찾아 받게 되니, 더욱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스승님! 스승님의 열반 앞에, 이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무상하고 또 무상하니, 슬픔도 무상하다 하겠습니까. 이 슬픔을 거두고 스승님께서 남기고 가신 거룩한 삶을 거울로 삼아 저희들도 스승님과 같이 크고 거룩한 불도를 성취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묘회심 스승님이시여! 모든 미몽을 떨치시고, 이제는 편히 영면하십시오. 편히 영면하십시오. 지극한 마음과 정성으로 서방 아미타부처님께 스승님의 왕생극락을 빌고 빌며, 삼가 영전에 고하옵니다.

음아니반메흠, 음아니반메흠, 음아니반메흠.

총기 29년 11월 14일

묘회심 지수님 열반 불교총지종 신도대표 수계사 모수연 합장



▲종령님의 조사를 대독하고 있는 효강 법정원장



▲묘회심 지수님 열반 불교총지종 기로원장 장의위원장 종령 록정 합장



▲아미타부처님께 스승님의 왕생극락을 빌며

동정

축하합니다

•총기 29년 12월2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밀양 '결혼이야기'에서 흥국사 전수님의 장남 여중준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중준님의 백년해로를 비로자나 부처님 전에 빕니다.

•건화사 불멸심 전수님 칠순잔치가 11월18일 12시 포항문화회관에서 있습니다. 칠순잔치 축하드리며 진언행자로서 오래오래 사시길 후학일등은 빕니다.

•총지사 신도이신 박경란님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초정가마솥 썸밥집을 개업했습니다. 동생분도 인양에서 인양해물탕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 모두 목실한 총지종 교도입니다. 모두 하시는 사업 날로 번창하시길 빕니다.

•부산 관준회 각자님이 지방취재원이 되겠다고 자원하였습니다. 관준회 각자님은 부산 정각사 교도로서 오랜 수행생활과 건실한 진언행자로서 부산지역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따뜻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취재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합창단·무용단 추계관불수련회 개최  
11월29일 서울·경인교구 합창단(단장 원각화) 및 무용단(단장 이상숙) 추계 관불수련회가 전라도 내비산 일대에서 열렸다. 이번 관불수련회는 회원간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다음 합창단 일정 및 무용단 일정에 대한 계획, 합창단과 무용단 회원을 늘리고 서울·경인교구의 합창단이 아니라 총지종에서 인정을 받는 합창단과 무용단이 되고, 이후 각 교구의 연합 합창단과 무용단이 조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하였다.

전국 사원 입시 불공실시  
지난 15일 2000년 대학수학능력고사를 맞아 전국 각 사원에서는 수험생들을 위한 불공을 하였다. 12년 공부를 대학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불합리하지만 수험생 모두에게 건투를 빕니다.

불교방송 이사회 참석  
본 종단 효강 법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월17일 12시 홀리데이인 서울 호텔에서 불교방송 이사간담회가 있었다. 이번 간담회는 불교방송 노동조합의 방송경영에 대한 특별감사요청과 재단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 및 관련사항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대북지원구호  
지난 11월 7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주관, 본종단 불교총지종 실무로 북한에 겨울용품을 지원했다. 겨울옷 525점, 내의 129점, 신발 131켤레, 이불 101점, 생필품 250세트 등 콘테이너 한개 분량을 한성선박회사를 통해 북측 조물련 앞으로 보냈다.

동해중학교 이사회 개최  
지난 11월17일 학교법인 대동학원 부산 동해중학교 이사회를 열어 정관계 및 학교 중추 기공식을 가졌다. 수성 이사장과 지성 총무부장 및 이사 전원이 참석하여 학교발전 방안과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여 동해중학교가 부산지역에 명문학교로 거듭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한국불교태고종 제 19대 총무원장 송종연 스님 선출  
태고종 중앙총회는 22일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79회 정기중앙총회를 열고, 18대 총무원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실시한 총무원장선거에서 송종연 스님을 선출했다.

47년생인 송종연 스님은 법륜사에서 이재복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여 태고종 종장으로부터 종덕법계 품수, 태고종 교무부장, 총무부장을 거쳐 이번 19대 총무원장에 당선되었다.

총지중보가 새로워졌습니다

총지중보 지방 취재원을 모집합니다

밀교의 세계, 진언의 세계에 함께 하실 분 총지중보로 연락하십시오.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76-2 불교총지종 총지중보사  
전화:(02)552-1080~3 팩스:(02)552-1080 www.chongji.lo.kr

바로잡습니다. 총지중보 1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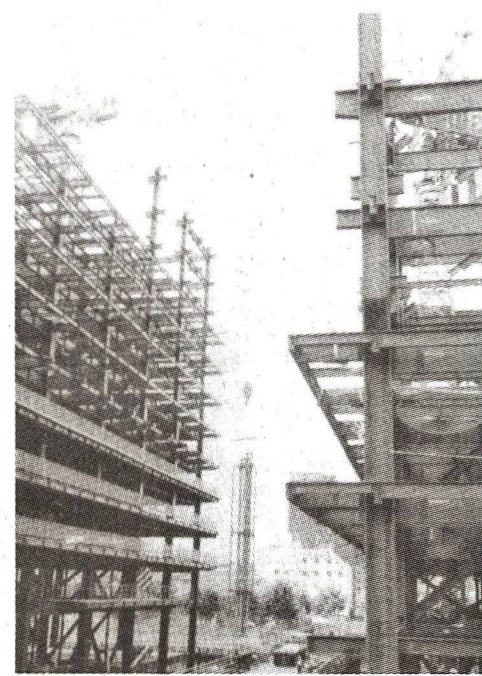
5면 남귀속보살님로, 6면 총지종의보감 (053)792-5115로, 7면 연꽃어망 김홍주 교무로 바로잡습니다.

옥천건설주식회사

건물의 심장과 같은 설비 공사를 옥천에 맡겨주세요!  
25년 장인의 정신으로 성실히 시공하겠습니다.



- unit FLOWER 공법시공 경험
- PFP 공법 시공 경험
- 25년의 설비시공 Knowhow



주요 사업

- APT 기계설비공사
- 오피스텔 기계설비공사
- 아파트형 공장 기계설비공사
- 병원 기계설비공사
- 숙박시설·사우나 기계설비공사
- 수영장 기계설비공사
- 사찰 설비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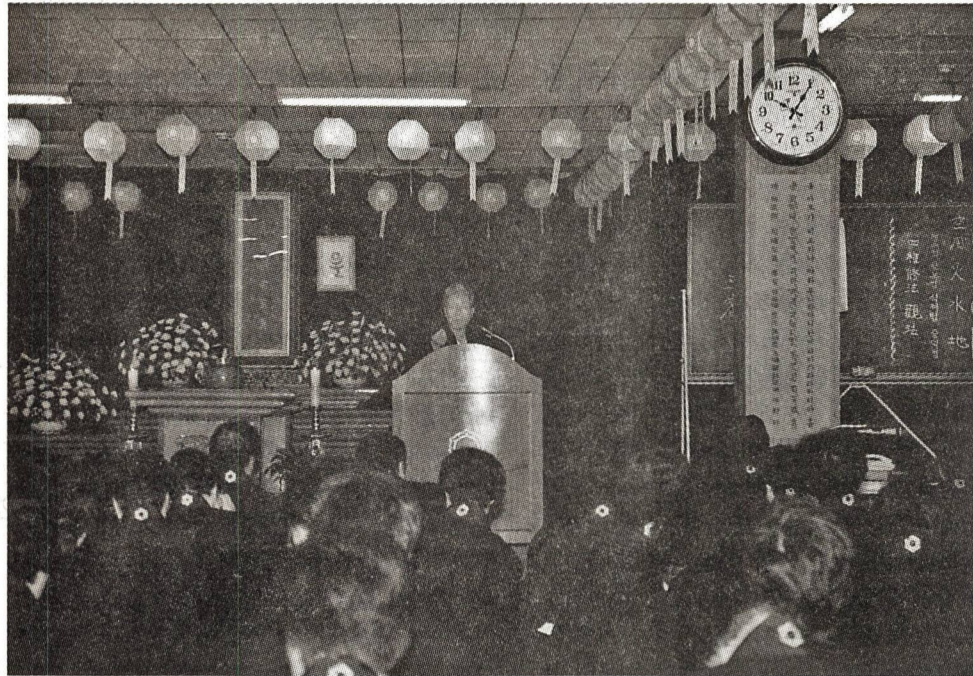
본사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9-45 서일B/D 302호 TEL : (02)588-5822(대) FAX : (02)522-8182 E-mail : yeokchun5822@hanmail.net

# 제56회 추기강공회 결산 교화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 교리중심의 경강공을 지양, 종단의 활성화 방안마련 촉진

지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본 종단 추기강공회가 개최되었다. 2박3일간 열렸던 이번 강공회에서 교리 중심의 경강공을 지양하고, 침체에 빠져있는 종단의 교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승단 스승님의 강연과 법정원 연구원의 연구발표로 진행된 이날 강공회에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교화활성화를 위하여 어떤 방안이 제시되었는지 살필수 주요 의강 대정사의 강연과 법정원 김홍배 연구원의 연구발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추기강공 때 통리원장의 강론

그 방안으로, 작은 일인 것 같지만 당장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각자님과 자녀들의 제도라고 강조했다. "교화활성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실현가능한 것부터 각 사원에서 실천토록 하자"고 역설했다. 또 의식(儀式)의 정비와 다양한 의례법의 개발을 강조했다.

두번째 연구발표에 나선 김홍배 연구원은 "교화의 연구는 궁극적으로 종단의 교상과 사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종단의 교화발전에 귀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학문탐구를 통해 그 동안 생각해왔던 종단교화방안들을 정리, 발표한다"고 밝혔다. 먼저 교화활성화를 위해 교화

교화방면에 있어서는 사원건물양식에 대한 재고(再考)와 시설활용방안을 제시했다. 현재의 사원건물에서 탈피, 종단 특유의 사찰양식을 미련하고 사원의 성격도 '기도중심도량'과 '포교중심도량'으로 양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여기에 사원 시설과 공간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거론되었다. 이제는 사원건물이 수행공간 뿐만 아니라 휴식의 공간, 문화의 공간으로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 이를 위해 내년 추기 강공회를 기하여 '교화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교화실태를 분석,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책과 대안을 마련하는 '교화방편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 방안마련에 앞서 먼저 승직자의 의욕적인 교화자세가 가장 중요 종단 차원의 구체적인 삼밀수행법을 정립하여 실천수행 강화 개인정승법과 공식불공의례법의 이원화로 종교적 외경심을 고취 종단 특유의 사찰양식필요, 기도중심도량·포교중심도량으로 양분 사원을 수행 공간 뿐만 아니라 휴식 공간, 문화 공간으로 확대활용

최일선에 계신 스승님들의 노력과 분발을 주문했다. 좋은 옷감이 있다해도 좋은 옷을 만들고 자 하는 마음과 의욕이 일어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것. 방안마련에 앞서 먼저 승직자의 의욕적인 교화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교화활성화를 위해 거시적인 안목의 중앙기 실천방안을 제안했다. 방원의 주요골자는 크게 수행과 교화방편으로 나누어진다.

수행면에서의 방안으로는 '구체적인 삼밀수행법의 정립'을 꼽았다. 즉 '삼밀수행을 제대로 행하고 있는가' 하는 실천수행의 문제제기였다. 바로 종단에서 '수행차제법의 정립'을 강구해야한다는 것. 특히 좌법, 호흡법, 명상과 관상법, 정언연승법 등의 정립을 역설했다. 현재 수행차제법에 대해, 법정원에서 연구 중에 있으므로, 우선 연구보장을 위한 승단의 인가를 요청했다.

수행면의 두번째 방안으로, 염승의례법의 이원화를 제시했다. 개인염승을 할 때와 대중이 함께 불공할 때의 의례법을 달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즉 '개인정승법'과 '공식불공의례법'로 나누어 행하자는 의견이었다. 집중된 의식을 통해 종교적 외경심을 고취시키자는 취지였다. 이는 의강 대정사가 제시한 '의식의 정비'와 일치하는 의견으로 '의례법의 개발 내지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창종 30주년을 위한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구성', '창종 30주년기념 특별화보집 발간', '달라이라마의 방한과 종단방문 일정 확보', '사원 포교예산제 도입', '교사편찬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또 법정원 연구과제로서 '종조일대기 편찬', '창종 및 원로스승님 육성증언 녹취', '종조어록 편찬', '종조 원정 사상 정립', '종조 왕정대사사 유품 정리 및 참고문헌 자료 분석', '종조 유품 및 사진전 전시, 사리친견 법회 병행', '종단 불사의귀소고 발간', '제2의 불교충전 편찬', '교화 경험담 및 영험담 수집, 책자발간', '강공교재 및 원고정리, 책자발간', '홈페이지개선', '창종 및 원로스승님들의 사진전 집필 권고', '포교용 월간 잡지 발간', '만다라 방안을 위한 불사의의 연구' 등을 제안했다. 또한 이를 전담할 전문연구기구로 법정원내 '종화연구소'의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무성한 계획과 방안들이 제시된 추기강공회. 그러나 한 가지라도 제대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결단과 추진력이 뒤따라야 이번 강공회의 진정한 회향이라 할 수 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부터, 그리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 여러 과제들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자'는 말이 공허한 말로 그치지 않을 바란다.

강공 이틀째였던 지난 26일 오전, 강단에 오른 의강 대정사는 먼저 사원 주교로서 그동안 직접 교화활동을 펼치며 일선 사원에서 겪었던 경험담과 소감을 밝혔다. "현교 스승님들에 비해 대외적 인지도가 낮고, 모든 제한 여건이 열악한 가운데서 우리 스승님들은 교화에 어려움이 많고 무척 힘이 든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동안 부산사암연합회 부회장을 맡아오면서 총지중 승직자로서 동분서주하며 종단을 알리고, 대중들을 제도(濟度)하고자 하는, 오직 그 일념(一念) 하나로 활동해왔다"고 솔직하면서

사원 안에 있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교화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사원의 교도들을 어떻게 교화하느냐하는 문제부터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원만한 신생활을 위해 먼저 교도 보살의 각자님들을 제도(濟度)해야 한다는 것. 가정의 화목을 최우선에 두는 교화방편을 강조한 것이다. 더 나아가 가족 모두를 사원에 나오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녀들의 제도(濟度)를 모든 스승님들에게 강력히 주문했다. 사실 노력의 교도들이 열반후 자신의 49재 천도불공을 자녀들이 올려줄까 하는 것이 가장

### 제반여건이 열악한 가운데 대중들을 제도하고자 하는 일념 만으로 활동 스승들이 종단을 대표하는 승직자로서의 의연한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 가정의 화목을 최우선에 두는 교화방편- 교도보살의 각자와 그 가족 제도

"우리 스승님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한 개인의 입장에서 벗어나 종단을 대표하는 승직자로서의 의연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종단발전을 위해 내년부터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화의 문제와 해결방안은 사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큰 걱정거리이다. 이것이 큰 문제라고 보면, 가족들의 제도는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교도가 정 제도는 큰 문제가 안된다는 것. 자녀들이 제도되지 않았을 경우, 불법(佛法)의 인연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요즘 세간에 명상이나 요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효과적이라는 매스컴의 보도 등이 잇따르면서 그 관심도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 선방이나 요가센터는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명상 수행의 효과는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는데 신체적인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뇌에 변화가 생기는데 뇌파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안정이 덜되고 초조한 상태가 되는 것이며, 주파수가 낮을수록 평온한 상태가 된다. 이러한 뇌파를 알고파라 하는 데 이 알고파라 늘 유지되면 의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 이다. 또 산소소비량과 탄산가스 배출에도 변화를 보이는데 산소 소비량이 20% 이상 감소되며 탄산가스 배출도 감소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혈압이 정상화 된다는 것이다. 정신을 단련시킨다는 것은 곧 육체와도 관련이 있으며 수행을 통해 정신과 육체를 건강하게 함은 우리의 삶에 있어 매우 유의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관념 수행에 아무런 불신에 머물고 있음을 관하는 것이다. 이러한 삼밀관행은 궁극적으로 자신과 우주 가 돌이 아닌 하나임을 체득하는 것이다. 현대인의 정신병인 스트레스나 노이로제에 빠지지 않고 또 쉽게 그러한 상태를 조절할 수 있게 한다. 현대인의 마음이나 정신이 외부로부터 자극을 많이 받게 되어 늘 긴장된 상태로 피로해 있다. 이 로인해 자신의 생활리듬이 깨지거나 불안정하고 하는 일에 무기력해지며 그 결과 여러 가지 성인병들이 생기게 된다. 건전한 정신에 건전한 신체가 깃들며, 마음이 건강하면 신체도 건강하게 됨은 당연한 것이다. 정신을 단련시킨다는 것은 곧 육체와도 관련이 있으며 수행을 통해 정신과 육체를 건강하게 함은 우리의 삶에 있어 매우 유의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하경목

### 정보다이렉트

#### 천주교 '일제하 과거사 반성'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일제하 민족운동 금지 등 천주교회가 과거에 잘못된 일 대해 포괄적으로 반성하는 문건을 12월 3일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쇄신과 화해"란 제목 아래 그동안 천주교 내부에서 반성적으로 논의해온 조상 제사의 금지, 병인양요, 일제하 민족운동의 금지, 안중근 의사 의거의 '실인' 규정, 신사참배 허용 등 구체적인 사건을 적시하지는 않고 과거 천주교회의 잘못에 대해 포괄적으로 참회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동아>

#### 통계로 본 '어제와 오늘'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에 따르면 인구는 50년에 비해 두배 이상 늘었다. 50년 2016만명인 것이 10년 단위로 500만~600만명씩 증가, 2000년에는 4727만명으로 늘어 인구수만으로 세계 25위에 올라갔고 성비는 2000년 현재 남자는 2383만명, 여자는 2344만명이다. 80년 531만호이던 주택수가 2000년 현재 1118만1000호로 늘었다. 특히 아파트 공급은 80년도에 37만호이던 가구수가 2000년에는 500만호에 육박하고 있다. 자동차는 50년에 1만 5000대에 불과하던 것이 97년 1000만대를 돌파했으며 2000년 9월 현재 1186만 7238대를 기록 중이다. <한겨레>

#### 추차공간 찾는 데 평생 2년

자동차를 좋아하는 이탈리아 사람들은 자동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평생 7년이나 되며 추차공간을 찾는 데 소비하는 시간만도 2년씩이나 된다고 이탈리아에서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로아 AFP>

#### 암세포도 '不死비밀' 풀렸다.

신체의 정상세포와 다른 이형(異形)세포를 찾아 죽이는 인체의 면역체계가 유독 암세포는 죽이지 못하는 이유가 밝혀져 암 퇴치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캐나다 일간지 내셔널포스트가 지난 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캐나다 앨버타대의 크리스 블리블리 박사과 브루스 모티카 박사가 참여한 연구팀은 암세포의 경우 세포가 면역체계로부터 공격받는 부위인 수용체를 없애 공격을 피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중앙>

#### 북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단어

평양의 사회과학출판사가 펴낸 '조선말대사전'은 부록으로 '사용빈도가 높은 어휘일람표'를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반명사는 '인민'이다. 다음으로 사람, 말(言), 당(黨), 혁명, 나라, 투쟁, 일, 자기, 앞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발간한 '한국의 형태소 및 어휘 사용 빈도의 분석 1'은 남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사람'이고 다음으로는 때(時), 일, 말, 사회, 속(內), 문제, 문화, 집, 경우도 나타났다. <한겨레>

#### 기억력을 높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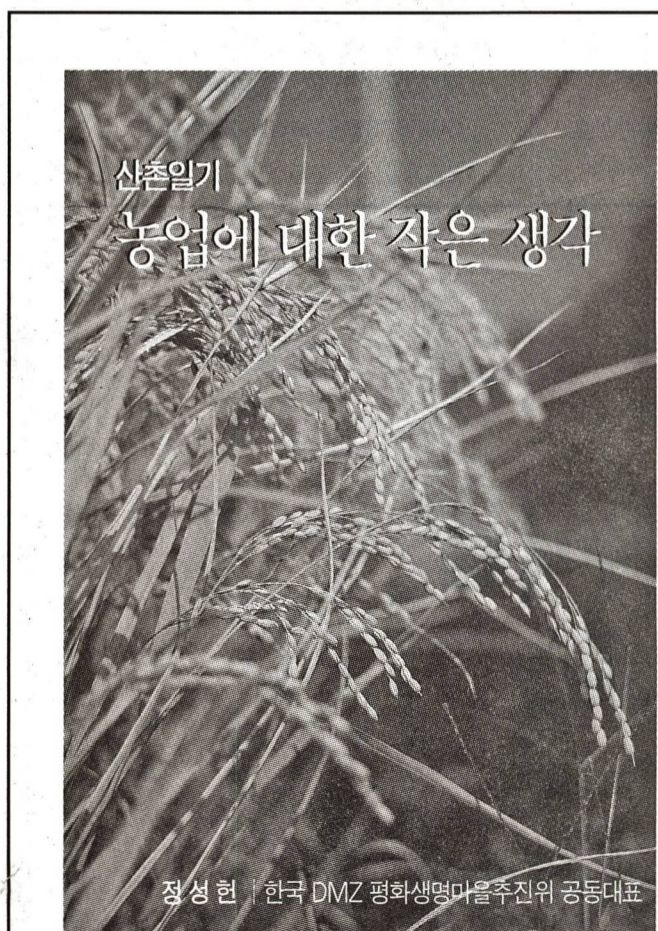
인간의 사고력을 담당하는 곳은 머리 앞부분에 위치한 전두엽. 이 부위는 피로나 약간의 호르몬 변화 등 미세한 자극이나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 그 결과 나이가 들면 주름살이 생기듯 이곳이 조금씩 손상돼 젊었을 때 비해 기억력이 떨어진다.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요인들은 "동맥경화, 미세한 뇌혈관손상, 갑상선 질환, 알콜, 약물" 등이 기억력 감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이 기억하기, 친지나 가족들 이름 외우기, 독서후 책 내용 되살려 보기" 등이 있으며 또한 비타민B, 엽산, 비타민E 등의 섭취는 기억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중앙>

#### 딩크 가고 이젠 투크족 시대

"여피와 딩크의 시대는 가고 이제는 투크족 시대". 미국의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는 최근 여유있는 미국 중산층의 상징이었던 여피족(도시의 젊은 전문직)과 아이없는 맞벌이부부(딩크)족을 넘어, 아이가 있는 맞벌이 부부(DEWKS, dual-employed-with kids)가 미국 가족의 절반을 넘어서 미국의 사회적 지형이 바뀌고 있다고 보도했다. 육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남녀의 역할 경계가 허물어지며 여성들의 정치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경향>

#### 간다가 제시하는 건강 실천법

1. 최대한 순수한 생각을 하고 게으르고 불순한 생각을 떨쳐버려라.
2. 밤낮으로 최대한 깨끗한 공기를 호흡하라.
3.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사이에 균형을 지켜라.
4. 바르게 먹고 바르게 앉고 정결하고 단정한 행동 하나하나에 내면의 상태가 드러나게 하라.
5. 이웃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여라.
6. 먹는 물과 음식과 공기는 반드시 깨끗해야 한다. 나이가 주변 환경을 자신을 위한 것보다 세 배 깨끗하게 유지하라. <한겨레>



### 산촌일기 농업에 대한 작은 생각

정성현 한국 DMZ 평화생명마을주진위 공동대표

내가 사는 곳은 강원도 춘천시에서 큰 고개를 넘고 포장안 한 험한 길을 2.3km나 달려야 되는 깊은 산골이다. 계곡이 위낙 깊고 깨끗한데다가 자연휴식년제가 2년째 실시되고 있어 골짜기 물은 차고 맑고 넉넉하다. 70년대에 화전민을 대대적으로 내려보내기 전까지는 140여농가가 주로 밭농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16농가가 가난하지만 오손도손 살아오고 있다. 우리 집 농사는 채소농사가 주된 것이고, 산간지 농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 소득이 되는 나무를 2080그루 키우고 있다. 사과, 배, 복숭아 등은 그저 먹을 만치 심었고 이삭 환경조건에 맞추어 산딸기, 산사, 산수유, 마귀목, 엄나무, 고로쇠 등을 많이 심었다. 또한 앞으로 예견되는 석유부족시대를 대비하고 청정연료로 쓰기 위해 때죽나무도 300그루를 심었는데, 때죽나무는 한 10여년 크면 한 그루에서 기름을 41정도搾 수 있고, 이 기름은 자동차 연료로도 무척 유용하다고 한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근본적으로는 맞는 말이나 현실시장에서는 틀린 말이다. 농업의 역할은 한마디로 '생생산업'이라고 단정해도 지나치지 않다. 식량을 생산하지 않으면 모두가 굶어 죽기 때문이다. 식량, 채소, 양념류, 과일류...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왕성한 탄소동화작용을 하여 탄산가스를 흡수·고정하고 산소를 내뿜는다. 이를테면 우리 밀을 심으면 1평에서 산소를 2.5kg이나 산출한다. 그런 점에서 농민은 생명의 일꾼이다. 어떤 이는 농민을 국토의 종합관리사(士)라고 부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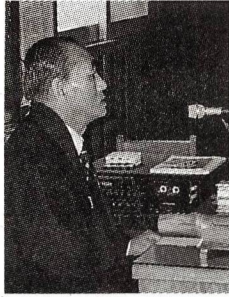
이렇게 중요한 농업이 파는 물건이 되어 '시장'에 들어서면 물결이 영 아니올시다가 된다. 예를 들어 요새 배추 상품 5짜리 1트럭에 140만원, 중품이 100만원인데 내용을 따져보자. 배추를 뽑고 다듬어 싣는데 35만원, 운임이 25만원, 도매시장에서 청소비, 수수료등 10~15만원 정도해서 70~75만원이 지출되어야 한다. 배추를 약 70~90일을 기르는데 들어간 종자, 비료, 농약, 인건비 등을 다 따지면 손에 잡히는 돈이 몇 푼 안된다. 다른 상품은 원가적정비율에, 독과점상품은 원가초과이윤까지도 실현하는데, 농산물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원가이하일 경우도 꽤 있고 적정비율 실현은 무척이나 힘들게 되어있다. 수요공급조절이나 유통구조개선이나 여러 가지 처방이 많지만 농산물 제값 받기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다. 농업사회건 산업사회건 정보화 사회이건 간에 또 앞으로 몇 년이면 진입한다는 바이오사회에서도 사람은 반드시 먹어야 안 산다. 생지필멸 회자정리의 철칙만치 생지필식(生者必食)이다. 그런 점에서 농업은 어떤 세상이 되어도 그 중요성이 타락되지 않는다. 그래서 "밥이 하늘이다"라는 말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하늘이 밥을 어떻게 먹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생명의 먹거리(=먹지 않는 먹거리)를 나눠 먹어야 한다. 요새 숯가루를 넣은 냉면생산업자 얘기가 신문방송에서 요란한데, 이분인가? 우리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콩나물 한가지라도 제대로 된 것이 판매되고 있는가? 더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마구 뿌려대는 농약과 비료, 약제업자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 나쁜 것을 첨가하는 것은 무척 흔한 일이다. 수입 농축산물 얘기에 이르면 아예 할말을 담은 것이 좋다. 수입 밀은 오랫동안 배에 싣고 와서 몇 년을 두어도 벌레조차 생기지 않는다. 태평양을 건너온 수입 밀에는 수확 후에만 농약을 최소한 15가지 이상을 추가 살포하기 때문이다. 다이옥신 검출 회피고기는 듣기에도 으스스하다. 그러면 어떡해야 하나? 농민이 생명의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도시 소비자가 각성하고 조직적으로 연대해야 한다. 밥은 그렇싸하고 그렇싸한 하면 생명의 먹거리를 나눌 수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가? 수입농축산물이 엄청나게 싸기 때문에 국산 농산물은 시장에서 밀려난다. 같은 국산 농산물이라도 생명의 먹거리는 너무 비싸 시민 형편에는 어렵다고 한다. 다 맞는 말이다. 하나 하나만 생각해 보자. 우리가 하루에 먹는 쌀이 얼마나 되나? 김치는 몇 푼 어찌나 되나? 커피 한 잔, 담배 한 갑의 몇 분의 일, 만값도 안 된다. 나의 생명이 치,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나? 독식(獨食)하면 분란이 일어나거나 감옥행이 십상이다. 밥을 나누어 먹는 모습은 넉넉하고 아름답다. 제빵, 제철 음식을 곱잡게, 전부, 나눠먹는 가정과 사회는 그 기본이 튼튼하고 실패다. 구조조정, 실업대란, 경제위기에 떠는 이웃, 울해도 굶주려 가며 고난의 행군을 외치는 북부 동포를 생각하며 밥=농업을 생각해 본다.

### 총지종 11월 약사

총지종 11월 약사는 금번에 통리원에서 준비하여 발간한 총지종 교사 자료집에 근거하여 72년부터 89년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편집자 주)

- 72년 11월 총정로 도량에서 총지종의 신앙대상인 본존과 불사의식을 결정.
- 17일 흑자색 비단 바탕에 금색실로 육자전언을 범자로 수놓은 것을 표구로 가공하여 금색 액자에 봉안한다.
- 24일 총정로선교부의 설단불사를 올렸으며 청정관 전수님을 주교로 임명
- 25일 밀양군 상동면에 유천선교부의 설단불사를 하여 무애정 전수님을 주교로 임명
- 73년 14일 현교에서 독송하고 있는 반야심경(원리전도몽상)을 밀교의 반야심경(원리일체전도몽상)으로 하여 독송 실시. 자성일, 대중동참불사, 49재, 진택불사, 기재열반불사 등에 독송하기로 함
- 교도가정에 환난과 병고시, 이사 입택시, 영식천도시, 진택불사법을 실시
- 74년 16일 인천시 북구 부평동 부평선교부 불단이설불사를 함
- 75년 1일 응신서원당의 권택배 각자님을 정사로 임명. 장환창(현 하정 법성사주교)을 밀행사 주교 임명 및 이동
- 77년 4일 총본산 본관건을 상량식 및 불사거행
- 15일 통리원에서 원의회 개최하여 7개의 사항을 의결
- 16일 통리원에서 유지재단이사회 및 중앙총회 합동회의 개최하여 10개 사항을 의결
- 실지사 도량에서 추기 10회 강공회를 개최하고 (밀교장경) 중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을 강설하고 폐회
- 17일 중앙총회에서 자가용승용차 구입 결의
- 78년 23일 전국 스승 및 교도 다수가 참석하여 밀양군 상동면에 일상사 현공불사를 거행
- 79년 5일 대통령 선출사 위대한 영도력의 소유 인물이 원만하게 선출되기를 희망하는 호국일념에서 7일 정진 실시
- 15일 박병우 각자를 밀인사에 범사로 임용하여 밀인사에 보조근무를 명함.
- 80년 1일 재단사무국장에 김옥(법 주. 노인복지센터근무) 교무를 임명
- 10일 정각사에서 수행중인 승순(현 성화사 주신제 전수). 정덕남(현 흥국사 밀공정 전수)을 중앙강원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인사보로 임용하고 정각사에 근무를 명함
- 12일 부산시 부산진구 관음사 현공불사
- 13일 경주시 구정동 승천사 현공불사
- 19일 응신 서원당 불단이설불사 거행
- 정각사에서 수행중인 석희돈(청담). 김차복(연등관)을 중앙강원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석희돈(청담)대법사를 주교로, 김차복(연등관) 인사보를 시북서원당에 근무 명함
- 83년 1월 정각사 근무중인 박복철(現 법정 화음사주교)대법사를 정각사 주교대리로 명함
- 15일 울산시 태화동에 실보사 현공불사
- 16일 전남 광주시 금동 원덕서원당 설단불사 거행
- 24일 중경 자문위원회 개최하여 종립유치원 운영위원회 선출, 부산 정각사 확장 매입건, 부평 지인사 신축 부지매입건, 법정원 운영강화 건 협의
- 29일 임시 원의회 개최
- 한마음유치원 운영위원회 개최하여 회칙통과 및 임원선출, 원장 임명
- 84년 29일 역삼동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경로잔치 배품. 정무장관 및 강남구청장 및 지역유지 280여명 참여
- 85년 13일 긴급원의회 및 종의회를 개최하여 현당통리원장의 취임으로 의강 대법사를 통리원장에 임명
- 18일 청담님을 승직발령하고 대법사에 임함
- 서울·경기교구장(복지화), 경북대구교구장(수성), 충청·전라교구장(총지화), 종정자문위원회(효강), 원의원(청담), 원의원(총지화) 명함
- 26일 통리원장 취임식 거행 및 각 지구교구장 인사단행
- 21일 경북교구 전용 중형버스 구입
- 86년 9월 박봉규 대전주 불의의 교통사고로 입적
- 17일 종립유치원 설립자 명의를 종단대표인 중경 이원재(현당) 명의로 변경
- 수인사 주교(김하를 현 원봉 수인사 주교), 승천사 주교(조순단 현 자선화 승천사 주교), 이춘자(현 지선행 수인사 전수) 를 수인사 근무토록 명함
- 87년 13일 경인지구 중형버스 구입
- 88년 3월 성화사 이설불사 거행
- 4월 마산시 자선동 운천사 현공불사 및 제2회 전국합창 경연대회 개최
- 89년 30일 대인사 이종숙(현 대관 기로원) 총기 20년 12월 31일 까지 연장근무 명함. 지수 권수교(현 상지화 기로원) 총기 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근무를 명함



해암 | 실보사 주교

### 지·상·설·법

## 밀교의식

## 삼밀관행법

이번 19호 총지종보 지상설법은 울산 실보사 주교이며 부산 경남교구장인 해암 정사님의 11월 19일 자성일 불공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내용은 가끔씩 각색하지 않고 녹취 그대로 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취재를 허락하신 해암 정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어제 신사년도 달력을 보니까 우리 보살님이 한등 급씩 진급이 되더라고요. 한등급 진급하신 것을 축하드리구요(일동 웃음). 신사년도 달력을 갖다 놓았으니가 필요하신 만큼 가져 가시구요.

저번 설법에는 현교와 밀교에 차이점을 말씀드렸는데 현교는 교주가 화신불이고 법신은 바로 우주 법계에 대일여래, 우주만물을 그대로 부처님으로 본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밀교에 대한 의식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밀교의 특징은 즉신성불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삼밀가지불교요, 복합불교, 현실적불교, 의식적인 불교입니다. 이것이 어느 종교와도 다른 점입니다.

밀교의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식은 단상을 준비하는게 중요합니다. 한국불교에서 각 사찰마다 단상을 정성스럽게 마련합니다. 예를 들면 불단을 3단으로 준비합니다. 현교의 대웅전에 가보면 제일 가운데 부처님상을 모시고 그 옆으로는 보살상을 모시는데 우리 종단은 진언인 오미나반해음을 모시고 있습니다. 부처님과 불보살을 모시는 곳은 상단 혹은 불단이라 하며 우리 종단의 단상도 3단으로 되어 있죠. 삼밀을 나타내는 3단을 차리고 있습니다. 그 아래는 많은 불보살을 모신 신장단 혹은 신중단·중단이라고 하죠. 다음은 사람이 들어가시면 죽은 이를 위해 영식 천도를 기원하는 단상이고 영혼의 위패가 모신 영단·영식단이라고 하죠. 한국불교는 어느 사찰을 보더라도 이러한 상단 중단 하단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단상이 모셔지면 다음으로 공양물이 올려지죠. 공양물은 예불과 예단과 예식이 모셔지고 공양물을 어떻게 모시는가 중요하합니다. 현교에서는 육법공양을 모시는데 우리 종단에서는 육법공양은 잘쓰지 않는데 육법공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향을 올리는 거죠. 향은 계, 정, 혜를 뜻하며 해탈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등불, 등을 밝히는 거죠. 등은 어

두운 곳을 밝히는 것이 등인데 이 등은 어둠을 밝히는 물질적인 등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해탈하시고 나서 밝은 지혜로서 인간의 무명을 밝히는 것이 등을 나타내죠. 이 등은 범어로 반야라고 합니다. 즉 완전한 지혜를 나타내는 반야등이라 하죠. 다음으로는 꽃을 올리는데 꽃은 피고 나면 열매를 맺는 데 꽃이라 하는 것은 해탈이라고 하는 결과를 이루기 전에 미리 우리가 공부도 하고 염승하고 불심을 닦고 자비의 만 가지를 실천하는 만행화를 나타내며 우리 모두가 꽃과 같이 되어 한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과일을 공양하는데 이 과일은 최종적으로 해탈의 결과 깨달음의 결과를 성취하는 것을 과일로 나타내는 거죠. 범어로는 보리라고 하며 깨달음과 해탈을 의미하는 거죠. 다음으로는 차를 올리는 데 차가 없을 경우 깨끗한 정화수를 올리는데 이것을 감로수라 하고, 감로는 인도에서 연원에서 찾을 수 있는데 히말라야 깊은 산에 들어가면 영특한 영약초라는 약초가 있는데 그 약초를 뜯어다가 술을 빚어서 마시면 병이 있는 사람은 병이 낫고 걱정근심이 있는 이는 걱정근심이 없어진다는 전설이 있는데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근심걱정을 몰아내는 것을 다 감로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에게 올리는 감로는 차나 물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없애주는 감로인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음식을 올리는데 그 음식에는 여섯가지 맛이 있는데 이 맛은 어디다가 비유하면 우리가 마음공부와 참선을 많이 하면 마음에서 우러나는 희열을 음식의 맛에다가 비유했는데 이것을 선열미라 하죠. 이삼과 같이 육법공양에는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우리가 불단에 올리는 모든 것은 물질적인 모습에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깊은 뜻과 마음에서 올리는 거죠. 공양을 올리는 데에도 법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향이나 맛이 들어있는 공양은 부처님 계시는 곳에는 올리지 않고 신중단이나 영단에



울산 태화강변에 우뚝선 실보사 전경

만 올리는 것이 하나의 관습처럼 되어 있는 거죠. 불교에 기본적인 공양물은 바로 향과 꽃과 등불을 올리는 것인데 물질로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염원과 뜻을 올리는 것이다. 우리종단에서는 세가지 즉 향과 꽃과 등불을 올리고 있죠.

예단과 예불이 모셔졌으면 다음으로 예식이 있어야 하는데 예식은 삼밀행법이라 합니다. 삼밀행법은 의밀인데 이는 부처님의 뜻과 나의 뜻을 통하는 것이며, 구밀은 진언 염승과 경을 외우는 것인데 이를 통해 부처님과 내가 바로 마주치는 것을 말하며, 다음으로 신밀인 몸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인데 합장, 결인, 수인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부처님과 하나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나라 불교에서 두가지 특징이 있는데 종교적인 의식은 거의 다 밀교적인 의식으로 되어 있으며 다른 하나는 정신적인 명인데 참선 선의 기풍이 강한데 한국불교는 밀교와 선이 조화된 불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 현교의식이다 하는데 실은 틀린 말입니다. 정확히 보면 현교의식이 아니라 밀교의식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교는 전생에서부터 지어온 업장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업장이 있는 모든 중생은 밀교의식을 통해서 염승을 하고 의식에 참가하게 되면 업장이 일시에 소멸되는 것입니다. 소승에서 대승으로 넘어와서 최상승의 종교가 밀교입니다.

여러 보살님! 불교의 최상승인 삼밀행법인 신밀은 인재를 맺고, 구밀인 진언을 염승하고, 의밀인 삼매에 들어 마음을 깨끗이 하여 진언수행을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성도합니다. **실보사** 경남 울산시 중구 태화동 31-21 전화: 052)244-7760

### THE WESTERN CONNECTION

## 서양과의 관계

아시아와 유럽에 살고 있는 200여명의 불교경전 학자들이 서양 불교경전 학자들을 위한 회담을 캘리포니아 우다크리에서 5일 동안 가졌다. 이 회담은 1993년 성인 달라이라마를 초청하여 인도 대담살라에서 샌프란시스코 쥘센터와 영적 명상센터의 주관으로 첫 모임을 가졌었다. 티벳, 한국, 일본, 베트남 학자들은 서양의 불교경전

은 아시아의 불교경전과 큰 차이점이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아시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서양에서 참석한 대표자들은 지금 여기서 극복해야 할 새로운 불교의 도전중의 하나는 완고하게 유지되어 온 아시아의 편협적인 불교 종파주의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개회식에서 짙 콘필드 학자는 선입견을 흥미롭게 풍자하고 불교경전의 새로운 교과서로써 변화되는 도전이라는 학자들의 공유점에 초점을 맞추고, 느슨하고 여유로운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책 등을 연설하였다. 그 회담은 인연설, 불교경전과 정신치료법, 변화된 공동체에 관한 소그룹의 토론을 가졌으며 달라이라마

와 이틀동안 대담의 기회를 가졌다. 그들은 아시아 이외의 지역에서 불교경전을 유지하고 육성시키는 방법과 불교 신도가 적은 서양에서 믿음과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방법 등을 논의하였다. 불교경전 학자들을 감동시킨 것은 휠체어를 타고 참석한 람다스의 연설이다. '현재 아픔, 늙음, 죽음의 고통이 존재할지라도 우리는 진정한 삶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자'고 주장한 그의 연설은 매우 감동적이었다. 학자들의 주된 관심을 유발하는 주제는 불교 금융 생활의 상황이었다. 이 회담의 특징 중의 하나는 많은 서양배구, 비구인들이 참석한 사실이다. 많은 학자들은 금융적인 생활은 탐욕과 무지를 극

복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 현대 사회생활에서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며 철저한 금융생활을 강조하였다. 한 미국 비구니인 타나스티가 태국, 티벳, 베트남, 라오스, 스리랑카에서 대두되고 있는 승려들의 계보에 관한 문제점의 수정을 달라이라마에게 건의하였으나 달라이라마는 아시아 불교 지도자들과 폭넓은 만남에서 토론할 문제라고 말하였다. 많은 서양 승려들은 아시아 승려들과 같이 금융적인 생활을 경험하고 상호신뢰와 공동의 협력을 다짐 하였다. <http://www.tricycle.com/news-events/westernnetwork.html> 번역: 김용주

### 생활광고편을 만들었습니다

본 광고는 독자여러분과 교도님들을 위한 면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의견, 강좌, 축하인사, 사업 등 다양한 광고를 받습니다. 총지종보사 광고사업부 연락주시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전화: (02)552-1801~3 팩스: (02)552-1802 Homepage: www.chongji.or.kr



## "노인을 위한 밝은 등불이 되겠습니다"

# www.chongji.or.kr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는 온갖 고통과 인내속에서 선진한국을 창출해낸 자랑스런 어른임을 인식하고 '노인공경사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는 노인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노인 모시기에 정성을 다하므로써 '효의 사회화운동'에 앞장섭니다.

### 후원회 안내

- 기금후원 : 한빛은행 122-138021-13-202
- 결연후원 : 무의탁노인 등을 1:1로 결연, 매월 후원(월 1만원 이상)
- 물품후원 : 도서, 의류, 가구, 식료품, 빈찬 등을 후원

사회복지법인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60-3 | 전화 (02)564-9294, 558-8771 | 전송 558-8772

#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따뜻한 겨울나기”

### 주거환경개선사업 · 사랑의 빵 나누기 사업 · 밑반찬배달사업 · 식사배달사업 · 김장나누기

복지센터에서는 추운 겨울을 맞이하여 10월부터 “따뜻한 겨울나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복지센터에서는 지난 10월 12일~13일 실시한 경로잔치 한마당 바자회 수익금으로 무의탁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2000년 1월부터 본 복지센터 이용 노인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 실태조사를 하고 예산이 확보된 이번 10월 30일 벽지와 장판 교체 방식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난방이 안돼 차가운 방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노인, 양식이 부족한 노인들이 많이 있다.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주변이웃에 대한 많은 관심과 손길이 더욱 필요한 계절이다.

▶복지센터에서는 11월 10일부터 “사랑의 빵 나누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주식회사 농심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역삼동 프레쉬 마켓내 바스키아 빵집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빵 100여개를 후원해 주어 실시할 수 있었다. 바스키아 빵집 담당자는 “복지센터에서 유용하게 활용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하며 매일 아침 전달해 주고 있다. 복지센터에서는 인근지역 생활보호대상 노인들 100여명에게 요일별로 나누어 드리고 있다.

▶지난 11월 3일 복지센터에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12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방문하였다. 이들은 강남여성시각장애인협회 회원 및 봉사자들로 자신들이 시각장애인이면서 자신들보다 불편한 노인들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본 복지센터내 주간보호센터 이용노인들에게 “안마 및 지압서비스”를 실시하였다. 2시간에 걸쳐 20여 노인들께 땀을 흘리며 정성껏 지압과 안마를 해 준 그들의 모습은 진정 살아있는 보살의 모습이었다. 이들은 앞으로 1달에 1번씩 정기적으로 본 센터를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을 드리기로 하였다.

▶복지센터에서는 지난 연초부터 ‘밑반찬배달사업’과 ‘식사(점심)배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들은 매일 아침 음식을 조리하여 거동이 불편한 무의탁 독거노인 40여 명에게 배달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한다. 현재 총지사

12월 2일(토) ‘김장나누기’를 할 예정이다. 복지센터에서 김장을 담궈 일부는 경로식당에서 사용하고, 일부는 거동이 불편하고 생활이 어려운 무의탁 독거노인 20여 분에게 나누어 드릴 예정이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과 자원봉사 활동을 기대한다.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프로그램 자원봉사활동과 후원에 복지자들의 많은 관심과 자비를 기대한다.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 02)564-9294】



한포기의 정성 들어있는 이웃에게 ...



현묵의 세상읽기

## 성찰 속으로

11월 25일 토요일 오후 4시. 종로역과 최후마당 시간이니 나는 사무실에 나와 앉아 있다. 절기상으로는 엄연히 겨울이다. 하지만 거리에는 아직 늦가을의 정취가 배어있다. 활벗은 가로수가 즐비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양치바른 곳에서 풍부한 햇살을 받고 있는 나무들에게는 아직 고스란히 가을이 남아있다. 이 도시에 흘러드는 스산한 세상소식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아직 남아있는 생명력에서 위안을 받아보려고 한다. 햇살이 사무실 앞마당을 고즈넉하게 만든다. 어느덧 오심을 바라보는 중년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늙은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젊은이도 아닌 중간에 들어 올린 해어되는데 딱히 될 하기도 어려운, 어중간한 나이다. 하루로 치면 오후 4시쯤이라고나 할까.

지난 천년대를 보내고 새천년을 맞을 때 나는 우리 가족과 ‘천년의 여행’을 떠났다. 서해안 만리포에서 천년대의 석양을 보며 나 자신에 대한 성찰을 했다. 그리고 동쪽으로 내륙의 영덕의 해안에서 새천년의 새벽을 맞았다. 비록 잔뜩 흐리고 간간히 빗방울이 떨어져 장엄한 일출은 보지 못했으나 나와 우리 가족은 새기운을 얻었다. 지난 밤 긴 시간을 운전하면서 나 자신에 대한 성찰을 했고 이제 저 먼 곳에서 하염없이 밀려오는 파도의 흰거품과 함께 물어오는 신새벽의 공기로 나를 새롭게 다지고자 했다.

나는 무엇인가? 불교적으로 보면 흠과 물과 불과 바람의 요소가 조합된 틈에 인식이 작용하는 ‘물건 일터’이지만 단순한 조합을 넘어 생동하는 인격체로서 나는 무엇인가 말이다. 되묻고 되묻는 스스로의 질문을 통해 인간 평균수명의 반을 후학 넘어선 나를 돌아보았다. 그리하여 내 부모가 살아있는 이상으로 가치있는 삶을 살지 못한 나를 책망하였다. 그 책망 위로 이제 앞으로 십 여년 밖에 남지 않은 활동력의 부담은 엄청난 무게로 작용하였다. 허전함과 동시에 위기감을 떨칠 수 없다.

외관상 아직도 나는 한창인 것 같다. 내 또래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흰머리도 없어 다행히 젊어 보인다. 하지만 속으로는 허물어지고 있음을 여실히 느낀다. 내 또래보다 속은 더 험련없는지 모른다. 몸의 곳곳에서 노후화의 조짐은 역력하다. 의식과 몸의 갈등이랄까. 사회과학적인 표현을 빌리면 ‘모순의 심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오래도록 건강하고 큰 바람과 이미 절정을 넘어선 몸의 기능간에 대만 목숨이 앞서는 것일지도. 결국에는 다시 올 새봄에 푸른 잎을 돋우기 위해 자신의 뿌리로 돌

아가는 낙엽과 같아야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늘 잊고 산다. 인생의 문은 점점 닫히고 있는데...

나는 지금 사무실 책상에 앉아 또다시 반성을 한다. 그 신새벽의 바닷가 차터찬 공기 속에서 다짐했던 서원을 실천하지 못한 나를 책망한다. 성찰이 한해도 지켜내지 못했으니 이 또한 무슨 몰골인가. 무엇보다 나는 이웃에게 저 마당에 내리는 늦가을의 따스한 햇살과 같은 존재가 되지 못했다. 오히려 가을결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늦가을의 비가 된 것은 아닐까. 사람이 이 나이쯤 되면 넉넉한 인품의 그늘을 만들어야 할 터인데 그러기는 커녕 나로 인해 가슴이픈 사람이 있게 하였다. 천성이 느려진 탓에 나를 아끼는 어른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기 일쑤다. 그분들의 넉넉한 보살핌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나의 행실을 고치지 못한다. 뿐인가. 세심한 배려를 하지 못해 나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게 만든 후배도 있다. 그 후배로 하여금 내게 절연의 할 장도를 틀어대게 하였다. 무슨 말을 해야 그가 내게 다시 예전의 따스함을 보여주려나. 못한 선배를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할 수는 없을까.

바깥에서만이 아니다. 가족들에게도 애비로서, 가장으로서 부끄럽기 그지없다. 어른으로서, 남편으로서 지켜야 할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공언히 말한 번드르렀고 영롱하게 다그치기도 했다. 일상에서의 규범을 지키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그 옛날 내가 어른들에게서 받았던 위선에 대한 모멸을 느끼고 있을지. 서산대사께서는 말로 세상을 화려하게 하는 것을 일컬어 ‘변소를 단청하라’고 『선가구경』을 통해 일갈하였다. 내가 꼭 그 짝이다. 스스로의 교정 없는 다짐이 무슨 소용이라.

맛있지 모르겠는데, 하이네의 시구가 떠오른다. ‘가슴에 서려있는 겨울’을 걷어내야 한다. 점점 내 가슴의 공간을 넓게 차지하고 있는 이 거드름의 냉랭함을 떨쳐내야 한다. 겨울을 겨울삼아 나를 돌아보아야 한다. 한 알이라도 더 걸기 위해 쓰러진 바이사를 짚으로 묶어 세우듯 바른 나를 만들어야 한다. 예전에는 세월이 고요히 발걸음처럼 소리없이 다가왔다. 이제는 코끼리의 걸음소리로 다가온다. 인생의 겨울을 수습할 수 있을 정도의 인품을 앞으로 남은 시간에 만들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다.

서동석 | 불교총지중보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

## 동해중학교 교무환경 대폭개선

### 학내 컴퓨터 전산망 구축 · 인터넷 전용선 설치 · 학내 증축공사 착수

▶동해중학교 교무환경이 대폭 개선되었다. 교육청 보조금 총 1억 2천 2백여만원을 지원받아 교무실 환경 및 학내 전산망 구축, 교실에 컴퓨터와 43인치 프로젝션 TV를 설치하였다. 교무실은 전교사의 책상을 컴퓨터용 책상과 의자로 교체하고 부서별로 파티션을 설치하여 교무업무의 효율성과 업무환경이 대폭 개선되었다. 또 휴연실 및 남·여 휴게실이 이전, 설치되면서 선생님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 교단 선진화 사업도 완료되었다. 전 교직원과 각 교실에 모두 컴퓨터가 설치되었다. 교실에는 컴퓨터 외에 43인치 프로젝션 TV가 설치되어 컴퓨터 화면을 바로 볼

수 있고, CD 및 VIDEO 등의 동영상 화면을 볼 수도 있다. 또 학교 내의 모든 컴퓨터를 정보실의 주 컴퓨터와 연결하여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인터넷 전용선을 설치하여 정보화사업이 완성되었다. 공문서의 유통이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학생들의 성적처리와 생활기록부도 모두 전산화 되면서 교단선진화 사업이 완료되었다.

▶동해중학교 증축공사가 본격 착수되었다. 종단에서 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2층 옥상에 교실 5개 구간의 특별실을 증축한다. 10월 16일 입찰공고를 하여 11월 6일 입찰을 실시하였다. 180여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였는데 그 중에서 제세종합건설(대표

지구 교감 8명, 장학사 2명)를 모시고 1억 5천 500만원에 5년 인건비도 프로그램 자료개발 적용을 통한 자기학습력 향상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회가 있었고, 박성관 선생님의 사회와 시범수업이 있었다.

▶본교 재진주(3학년) 학생이 민족서관학교에 합격했다. 민족서관학교는 강원도 횡성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파스퇴르유업에서 민족주체성 교육으로 우리나라 각계각층의 지도자 육성을 교육목표로 삼아 전국에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중점육성하는 학교다. 3년간 학비가 면제되며 모집인원이 79명으로 경쟁률 6:1의 어려운 관문을 넘어 당당히 합격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허훈)이 낙찰되어 22일부터 본격 공사에 착수하였다.

▶지난 10월 31일 동해중학교에서 ‘2000학년도 동래교육청 동래지구 자율장학협의회’가 개최되었다. 동래

## 교도의 소리

### 봉사의 정신으로 살자

봉사를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행동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의 개념과 동일하다.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변해버린 현대 사회에서 마르지 않고 살아있는 정신은 바로 봉사정신이다.

이러한 정신이 존재하기에 우리 사회는 밝고 아름다운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봉사는 탐욕과 애욕으로 가득찬 자신의 마음을 버리고 보시의 마음으로 자신보다 남을 위하는 삶을 통해 보람을 느끼는 것이다. 우리는 봉사를 아주 거창한 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아주 간단하다. 매주 양로원을 찾아 노인들의 머리를 다듬어 주는 한 미용사는 하루

동안 자신의 가게에서 일을 하면 30만원을 벌 수 있다. 그러나 양로원에서 봉사하는 하루가 자신의 삶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봉사의 삶을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전북 호원대학교 교무처 유정아)

**종보를 뒤늦게 읽고나서...**

안녕하세요. 과산 어린이 캠프에 다니던 권진숙입니다.

뒤늦게 종보를 받아 보았습니다. 신문이란 것 만들기 참 어렵죠. 하지만 그만큼의 값어치는 있다고 봅니다. 먼저 신문의 오타가 많네요. 예로 5면의 남귀속보살님인지

남귀속보살님인지 같은 면에 틀리게 나온 이름이나 7면의 국군장병, 국군장병 등의 말 실수는 성의부족으로 보입니다. 컴퓨터 편집과정에서 찾아낼 수 있는 실수였죠.

또한 보살님들이 싸고 저렴한 가격에 광고를 올릴 수 있는 걸 아실지, 종교라는 자체가 그저 염승이나 열심히 하고 절에 자주 얼굴을 보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 이종마들에게 신문 내용이 어렵습니다. 서울에만 국한된 신문이 되기 보다는 지방의 보살님들의 수필이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적체험(?)같은 일이 우리의 일상에도 많다고 봅니다. 기사가 찾아가 취재를 한다면 좋겠는데... 18호나 만들었으면 어느 정도 틀을 잡고 있어야 하는데 포맷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네요. 다음 종보가 빨리 나오길 기대하며 다음에 들리겠습니다.

## 불교문학이끼

### 만해 한응운

만해 한응운은 승려로서 근대한국시대에 중요한 시인으로서 그 세월의 흐름에도 결코 퇴색되어 잊혀져 가는 인물이 아니다.

그는 어려운 한자어로 된 불경을 우리말로 옮겨 한자를 몰라 불경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불경을 접할 수 있게 하는 불교 대중화 작업에 주력하였고, 1910년에는 불교의 유신을 주장하는 논저 『조선 불교 유신론』을 저술하였으며, 『불교 대전』, 『채근담,주해본』을 저술하는 등 한국 불교계에서도 그의 업적은 각광 받는다.

그러나 만해 한응운 하면 우리는 ‘님의 침묵’을 쓴 시인으로서 그를 먼저 떠올리게 된다. 그는 1926년 평이하면서도 소박하고 단순한 느낌을 주는 88행의 시가 수록된 시집 『님의 침묵』을 발간하게 된다. 만해는 그의 작품을 통해서 종교적, 사회적 활동의 전체를 관류하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존재 방식에 대한 반성과 증언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1운동의 주동자로 지목받은 그는 3년이란 세월의 옥고를 치렀다는 사실에서도, 이 시를 쓴 시기가 일제 강점기이었음을 염두하고 있다면 그의 시가 센터멘탈에 빠져 여인에 대한 사랑의 뉘그러는 아픔을 알 수 있다.

‘님은 갔지만 나는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 습니다’가 역설적 표현을 대표하는 구절이라 할 수 있는데, 삶에 있어서 헤어짐과 만남은 하나라는 역설적 진리를 담아내고 있으며, 빛과 어둠, 희망과 절망, 만남과 이별 등의 서로 모순되는 시어를 대응시켜 대립의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나는 향기로운 너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너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이런 표현은 시인이 인간 본질을 깊이 꿰뚫고 있음을 보여 주며, 이것은 반야심경의 ‘色即 是空 空即是色’의 불교적 진리를 영원한 있음도 영원한 없음도 없다는 불교적 깨달음을 시적으로 형상화 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만해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일제 시대를 넘어 사라진 시대로, 자기 현실을 넘어 침묵하는 현실로 인식했다. 그러나 만해는 가시적인 것은 곧 거짓임을 알았고, 민족과 조국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혼자만의 평안을 구하는 대신에 과감하게 민족의 얼을 일깨운 선각자적 지식인의 모습으로 광복을 1년 앞둔 1944년 서울 성북동에서 생을 마감한다.

그의 시는 젊은이에게는 사랑의 노래로써, 종교인에게는 구원의 언어로써, 민족주의자들에게는 민족해방의 염원을 주는 암호로써 읽혀져 오늘날까지 그의 언어는 숨쉬며 그는 그 속에서 영원히 존재하여 떠나지 않았음을 안다.

이현주



## 순수함 이상 강한 힘은 없다

함께하는 사람들은 1998년 12월 전 현 올림픽-아세아게임 메달리스트 선수들과 국가대표 선수들이 중심이 되어 국민들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결성되어 현재까지 사회 곳곳에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매달 1회씩 직접 방문하여 사랑을 나누고 있는 단체입니다.

**후원회 안내**

- 후원형태 : 오천원, 만원, 만원 이상
- 후원금 입금 : 국민은행 083-01-0306-861 예금주: 함께하는 사람들(현정화)
- 자원봉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http://www.saram.or.kr>, [www.lovelove.or.kr](http://www.lovelove.or.kr)에 오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Homepage 안내** 함께하는 사람들 11월 홈페이지를 개통합니다. 국민 홈페이지라는 concept 아래 사이버상에서 국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발전해 나가는 대한민국 국민 홈페이지로 자리매김할 예정입니다.





연꽃마당

더러운 진흙탕에서 피는 연꽃처럼 사회에서 꽃피우는 佛子들의 이야기

통리원장·법정원장 제3차 한중일 불교대회 참석



롯데호텔에서 한·중·일 3국 불교지도자와 환담

지난 10월 23일~25일까지 제3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신세계세계평화기원 법회 및 국제학술포럼"이 서울 롯데호텔·히링가·천태종 관문사에서 열렸다.

본 종단 총지와 원장장 효과 법정원장 등 200여 명의 한·중·일 스님들이 참석한 이번 대회에서 첫날 3국 불교우호교류회의 실무회의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의장 주체 환영만찬이 있었으며 다음날 천태종 관문사에서 신세계 세계평화 기원법회 및 국제학술포럼이 열렸다.

지역에는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 주체 환영만찬에 효과 법정원장은 3국 불교도의 황금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며, 한중일 불교도들이 세계평화와·신세기 동북아시아의 평화구축과 교류활동에 최선을 다하자는 축제의제가 있었다.

만다라 조성 대작불사에 혼을 싣고



롯데호텔에서 한·중·일 3국 불교지도자와 환담

롯데호텔에서 한·중·일 3국 불교지도자와 환담

교의 세계를 그림으로 나타내어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 만다라이다. 밀교에는 수많은 종류의 만다라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양부 만다라로 불리어지는 태장계 만다라와 금강계 만다라가 가장 완벽하고 뛰어나다.

본 종단의 대작불사중 하나인 금강계 만다라와 태장계 만다라 조성 불사에 혼을 싣고 작업에 여념이 없으신 최성규 교수님을 지난 11월 18일 성암사 불교문화원에서 만나 보았다.

일반적인 만다라의 그림, 일본이나 인도의 그림을 그대로 본뜨는 것은 그림이 아니라 하나의 복사본에 불과하다며 본 총지 종단의 불사는 우리의 한국적 만다라 창조임을 강조하며, 물론 만다라교본에 나와 있는 교의적인 것이 분명한 것과 결연과 수인은 그대로 두지만 가장 중요한 도상과 의상, 화관은 한국적인 것으로 창작하였다. 이러한 창작의 작업은 여러 가지 한국불화에 나오는 모든 것을 종합하다 보니 자료 수집에만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한다.

불보살 한존을 그리는 데 5번의 밑그림과 7번의 색칠로 불보살 한존이 태어나는데, 태장계 만다라 409존, 금강계 만다라 1461존을 그리는 데 드는 시간과 공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 작업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양부 만다라 조성 작업의 진행정도는 50% 정도이며 자료수집으로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초벌작업은 마쳤으므로 채색 작업은 종단의 바램처럼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성규님은 한국불화의 최고봉인 만봉스님 일설스님의 제자로서 경북대 예술대학과 동국대 미술대학원을 졸업하여 1987년 경북미술대전을 시작으로 1999년 '99 아름다운 서울 그림전' 등 약 100여 차례 개인전 및 단체전에 초대받아 실력을 인정받아 왔다.

현재 승가대학, 경북대, 봉원사에서 출강하며 "내생에 만다라를 제대로 한번 해보는 것이 나의 바램"이라는 교수님의 말씀에서 만다라 조성불사의 열정과 애정을 볼 수 있었다.

파리논의 수행자 한국 전통문화 체험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문화 및 정보산업시대인 21세기를 맞이하여 5000년 유구한 역사 속에서 찬란한 우리 민족의 문화를 해외와 외국인들에게 바르게 알리고자 외국인 수행자를 대상으로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지난 11월3일부터 4박5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19개국 49명의 파리논의 수행자들은 한국전

통문화체험에서 석굴암, 불국사, 경주 남산, 해인사, 안동 하회마을, 소수선원, 봉정암, 법주사, 용인민속촌, 서울 봉원사를 방문하여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였다.



외국인 수행자들의 불국사 순례

문화관광부의 지원으로 실시된 해외파견 국제포교사 한국문화체험과 같은 문화체험은 국내에 장기(단기) 체류중인 외국인 수행자를 우리 민족 유형·무형의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체험하여 해외에 우리 문화를 알리고 전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들은 유네스코의 평화의 문화와 비폭력을 위한 선언 2000을 채택하였다.

조직화된 신도회를 준비중...

가칭 총지종 신도회를 조직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 지난 11월 12일 20여 명이 월초불공을 마치고 신도회 조직을 만들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간담회에서 신도회라는 거창한 이름보다는 총지사를 중심으로 남자 신도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을 가지고 점차 지방사원과 연대하여 연맹체, 직능대, 직업별 신도회를 건설하는 의견이 모아졌다. 무엇보다도 이름난 존재하는 신도회가 아니라 내용과 연대가 튼튼한 조직을 만들어서 종단 발전에 기여하자고 했다. 특히 1달에 1회씩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신도회 조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번 모임의 총무에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법주(법명)님이 만장일치로 임명되었다. 한편 법주 총무는 sumisan.hihome.com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칭 총지종을 사랑하는 모임을 홍보하며 회원배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중석 연구원 韓印국제학술대회 참가

법정원 이중석연구원은 12월 4일부터 시작되는 한국·인도국제불교학술포럼에 참가하여 논문을 발표한다. 한국과 인도간의 불교 교류사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 본 종의 이중석연구원은 "밀교의례에서의 바라문교의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다.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사상사업단(BK21)의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과 인도간의 불교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인도의 불교 발전을 위하여 양국의 불교학자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발표한다.

(가칭) 강남사암연합회 결성 준비중...

(가칭) 강남사암연합회가 12월 7일 전법의 조직화, 지역의 화합, 불교문화의 발전이란 주제를 가지고 결성이 된다

70년대 강남의 개발과 더불어 지역내 불교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전통사찰 봉은사와 불교총지종 본산 총지사가 역삼동에 자리잡으면서 불교포교의 기점이 되었으며, 80년대에 들어 포교운동의 활성화에 힘입어 강남포교원, 구룡사, 보리사, 능인선원 등 강남구내 16곳(강남구청 문화공보과 자료)의 불교사원에서 대중불교운동에 큰몫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큰 영향에도 불구하고 각 사원별 중심의 활동으로 인해 지역내 전반적인 불교계 전법사업, 대중의 불교적 정서조성, 지역내 영향력들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었으며, 도시포교의 전형을 이룬 이 지역에 불교연합체가 없으므로 인해 스스로 영향력을 감수시키는 실정이었다. 물론 서초구사암연합회가 2년전에 발족하여 활동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 송파구에는 아직 이러한 움직임이 없는 실정이다.

강남구의 대다수 주민은 높은 교육수준과 중상층 이상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신세대들의 신용 명사로 자리잡고 있는 로데오 거리 압구정로, 예술의 거리 청담동 및 벤처타운이 모여있는 특수한 지역에서 불교의 현대적 포교와 복지종착부에서 불교계의 역할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가칭) 강남사암연합회 준비실무자인 서동석(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은 만약 강남사암연합회가 발족 된다면 강남지역에서 포교의 규모가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며 사업의 영역으로는 사원이 개설되지 않은 지역에 포교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연합불교문화행사를 준비하여 불교문화를 전파하여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부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 및 복지균형에 불교계가 공동대응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강남사암연합회의 결성은 강남지역 포교의 거점과 포교운동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불교도연맹 접촉제의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조선불교도연맹은 오는 12월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접촉을 한다.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박태화 명의로 온 FAX 전문을 보면 지난 북한통포 겨울나기 용품(불교총지종 실무) 콘테이너를 잘 받았다고 하며, 아직도 북한의 불교도들은 어려움이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못함을 밝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음을 암시하였다.

또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명분있게 나온다면 조선불교도연맹은 광양 방문 초청장을 가지고 나갈 것이라 밝혀 이번 회담결과에 따라 불교계의 획기적인 통일논의 및 대북접촉이 전개 될 것이다.

생활속의 권리 지키미

신용카드 소득공제

- 1. 개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를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 소득세 계산시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소득공제하는 제도.
- 2. 소득공제액**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당해년도 총급여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10%를 소득공제한다. 단,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신용카드 사용금액 - 총급여액×10%)×10%  
(2) 300만원  
(3) 총급여액×10%
- 3. 신용카드의 범위**  
신용카드, 직불카드와 백화점계 카드는 포함되나, 선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는 제외된다.
- 4.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자 범위**  
근로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존속포함)이 해당된다. 다만, 연간 종합과세되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은 제외된다. 형제, 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제외.
- 5. 공제대상 신용카드액**  
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사용한 금액, 할부 또는 장기할부부 채화 또는 용역을 구비한 경우에는 구입시점의 금액을 카드사용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 6. 신용카드 사용액의 확인방법 및 절차**  
카드회사가 매년 12월 중에 전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의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을 고객에게 통보, 공제 대상자는 이를 "신용카드공제 신청서와 함께 연말정산(익년1월)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서(익년 5월)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세무서에 증빙으로 제출해야한다.
- 7. 공제가 안되는 신용카드 사용액**  
1) 외국에서 사용한 카드 사용액,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 사용취소된 금액  
2)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3) 의료보험법 등에 의해 부담하는 보험료,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채신보험)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4) 영유아 보육시설의 보육비용, 유치원, 초·중·고·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료·입학금  
5)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6) 국제·지방세  
7)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TV시청료 등 제세 공과금의 납부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

- 1. 기본공제**  
본인,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배우자,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부양가족 1인당 백만원 씩 공제하며 부양가족은 연령의 제한이 있다.
- 2. 추가공제**  
경로자, 장애자, 부녀자, 6세이하 직계비속등의 공제료 1건당 5십만원을 공제한다.
- 3. 특별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등의 공제제도가 있다.

쓴소리 단소리

종보는 종단발전의 다양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야  
무관심과 무책임이 아닌 책임 있는 관심 필요

옛말에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사물을 파악하는데 지역적인 문제에 얽매어 전체를 보지 못함을 이야기하며, 숲을 보고 나무를 보지 못하는 사물의 전체적인 모습은 파악하지만 사물을 이루고 있는 개별적 특성을 보지 못함을 이야기 한 것이다.  
종보는 종단의 기관지이다. 기관지의 임무는 첫째 종단의 교상과 사상을 대외적, 대내적으로 공고히 하는 것이다. 둘째 종단의 정책을 홍보하여 대 사회적 위상을 높여야 하는 임무가 주어진다. 셋째 교도들에게는 교화 홍보지로서 종보의 정체성이 주어진다. 종보는 종단의 기관지 역할 뿐만 아니라 신문의 일반적인 역할인 비판적 기능, 사실적 내용 전달,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장소로서 종단발전

의 다양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비판하는 보도지의 사명이 주어지고 있다.  
17호 총지정보가 나온 후 실로 오랜만에 18호 종보가 나왔다. 18호 종보가 발행되고 나서 여러 사람들의 격려도 있었고 애정 어린 비판과 관심을 가져 주셨다. 앞으로 총지정보사는 더욱 분발하여 종단과 교도에게 부끄럽지 않은 종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비난이 아닌 건전한 비판을, 힐난이 아닌 애정 어린 격려를, 무관심과 무책임이 아닌 책임성 있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신문은 어느 개인의 사유물이 아닌 공공성이 최우선시 되기에 종단 전체의 봉사사업으로서 위치지워지길 바란다.

# 요가

하타요가에서 쿤달리나탄트라까지

## 요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요가 행자가 쓴 책

이 책은 동국대학교 인도철학에서 <고전 요가의 이론과 실천에 대한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요가연수원 원장으로 10여 년간 현장에서 요가를 지도하고 실천해온 저자가 이론과 실천을 바탕으로 지은 책으로서 요가 전반에 관한 이론서이면서 또한 실천 행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서이다. 특히 국내 유일의 요가 전공 박사로서 요가 이론에 밝을 뿐 아니라, 현재 요가 수련생들을 직접 지도하고 있는 요가 행자가 쓴 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될만 하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요가의 대표적인 세 가지 경전론 통해 5천년 역사를 가진 요가의 본질을 밝히는 한편, 발전과 변모 과정에서 이름난 요가일 뿐 요가와 는 너무나 다르게 변질되어 버린 오늘날 요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제는 요가의 본질로 돌아갈 때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태영 저 / 신국판 / 368쪽 / 7,800원

**저자 이태영**  
이태영 박사는 숭실대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인도철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0여 년 동안 동국대를 비롯해서 숭실대, 명지대 등에서 강의해 왔으며, 현재는 한국요가 연수원 원장으로 있다. 저서로는 <요가의 이론과 실천>, <업사상>, <초월의 길 해탈의 길> 등이 있으며, 다수의 논문을 썼다.

# 사원에예법과 불자에예절

## 사원에 처음 오신 신도분을 위한...

처음 불교에 입문하고 절을 찾는 분들이나 또 사찰에 오래 다닌 신도분들이라 하더라도 사찰의 예법과 불자의 예절을 잘 모르는 경우를 우리는 허다하게 봅니다.

이 책은 이런 초신자들을 위해 많은 사진과 함께 쉽게 설명해 주고 있어 누구든지 쉽게 사원에예법과 불자에예절을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큰 스님들의 말 한 마디, 행동거지 하나 하나가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큰 스승을 만나 곁에서 가르침을 받고 의문을 해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쉬운대로 책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책을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너무 전문적이어서 처음 절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지 소임도 살아보고, 종단의 포교일선에서 활동한 경험을 살려 기본이 되는 교재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재가 있다면 포교에 좀더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저자의 머리말

성수스님저/46판/240쪽/7,500원

사원탐방은 종도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스승님, 신도분들의 따뜻한 이야기, 신앙체험담, 사원의 신도회 자랑 등 작고 아름다운 사연들을 들려드립니다. 이러한 사연들이 다른 사원 신도 여러분들과 교류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전화:(02)552-1080 팩스:(02)552-1082

### 성남 법천사 원만원(圓滿願)전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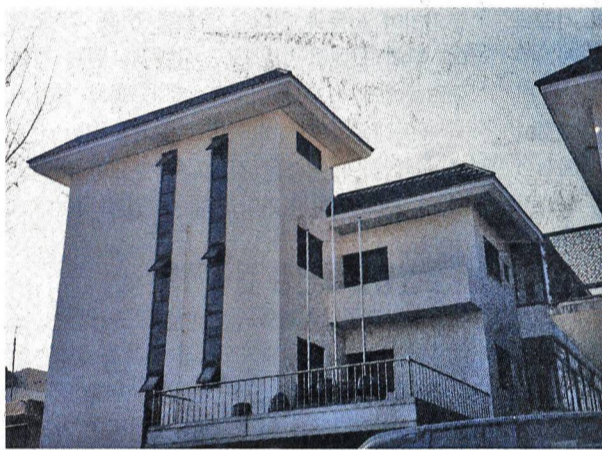
취재 박현수·황의수



승직자나 신도들은 다른 어느 사원 보다 행동거지나 말 한마디에도 신중함과 겸손함이 있다. 이것은 바로 곁에서 항상 여러 원로스승님을 모시고 있으니 자신들도 모르게 스스로 몸에 인 자연스러운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신도회 회장과 함께



원로스승님이 계신 기로원



경기 남부지역 전법교회 전초기지 법천사 전경

대도시의 주변에 있으면서 주거·공업·문화·관광·경제 등에서 대도시의 보완적 기능을 가지는 중소도시, 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 특히 서울의 급격한 도시화로 주위의 중소도시가 그 기능의 일부를 흡수하고 그것을 담당하는 위성도시로 발전해 왔다. 서울의 도심에서 20~30km내외에 있는 인천·부천·안양·수원·의정부·구리·안산·동두천·성남 등이 서울의 위성도시이다. 특히 법천사가 위치하고 있는 성남은 서울의 주택난 해소 위해 1969년부터 서울시 철거민을 성남으로 대대적인 집단이주시켜 주택위성도시로서의 기능을 전제로 도시가 계획되었다. 1989년에 성남시 남쪽지역의 소위 '남단늑지'를 중심으로 분당지역 일대에 42만 인구를 수용하는 성남 분당 신도시 계획의 완공으로 현재 상주인구 100만의 거대한 도시로 변화하였다. 계층별 지역 인구 분포에서는 다른 도시와는 많은 상이한 특징이 있다. 먼저 이주해온 서울시 철거민들은 그 생활수준이나 문화적 경제적 여건이 그렇게 좋은 층은 아니다. 소위 말하는 서민층이라고 칭하는 계층의 사람들이며 나중에 분당으로 이주해온 분류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계층이나 사회지식인층 등 중상류층이라고 칭하는 계층이 들어와 법천사가 위치한 중원구와 남단늑지에 형성된 분당구는 같은 성남시에 속한 지역이지만 정치적 성향, 문화생활이나 종교적인 성향, 소비패턴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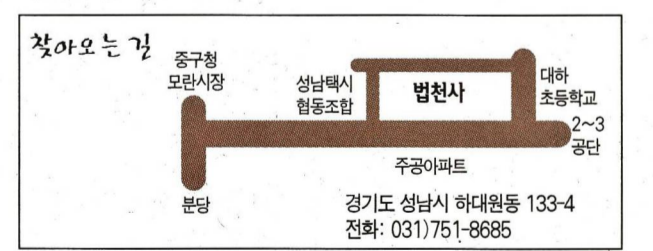
이러한 여타 도시나 지역과는 특히 한 사항 속에서도 법천사는 서울의각과 경기도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법교회의 총지중 전초기지로서 법천사의 전신인 시복서원당(施福誓願堂) 때부터 경제적으로 어렵고 생활이 힘든 서민층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부처님의 전당으로서, 물질만능주의에 지친 정신적 빈곤함에 허덕이는 현대인들에게는 정신적 가치의 중요함을 일깨워 주는 비로자나부처님의 상주처로서 현재까지 나름대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고 앞으로도 변함 없이 부처님의 자비를 펼치는 일선에 그 위치를 할 것이다.

현재 법천사 신도회 회장인 신상각보살님은 당시 성남에서 동대문에 있는 밀인사까지 다니던 중 너무 거리가 멀어 성남에 서원당이 생겼으면 하는 서원을 세우고 종조 원정님께 그 서원을 말씀드렸는데 원정님께서 그 서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였으나 그 해 9월에 열반에 드시고 말았다. 그러나 그 약속은 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 해 12월 즉 총기 9년에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에 시복서원당이 개설되었고 부산 정각사에서 수행하시던 청담, 연등관 두 스승님을 주교로 모시게 되었다. 총기 11년에는 현재 기로원에 기거 중이신 원로스승 상지화 전수님께서 죽비를 잡고 시복서원당을 이끌어 나오시다 총기 16년 현재의 위치에 지하 1층 지상 2층에 서원당과 요사채를 갖춘 사원을 신축하여 그 사원명을 법천사라 명명(命名)하였다 현재 주교이신 원만원(圓滿願) 스승님은 부산 관음사에서 시무를 마치고 총기 21년에 초임을 법천사 주교를 맡아 지금까지 승직자로서, 주교로서의 소임을 훌륭히 다하고 있다. 법천사는 사원의 규모나 신도들의 활동으로 보아 종단 내에서

큰 사원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여타사원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곁에 일선교회에서 몰려나신 원로스승님들을 모시는 기로원이 바로 한 울타리 안에 있어, 집안에 어른이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은 그 집안 분위기부터 다른 것처럼 법천사의 분위기는 여느 사원과 조금 다르다. 승직자나 신도들은 다른 어느 사원 보다 행동거지나 말 한마디에도 신중함과 겸손함이 있다. 이것은 바로 곁에서 항상 여러 원로스승님을 모시고 있으니 자신들도 모르게 스스로 몸에 배인 자연스러운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또한 법천사 신도들은 연령층이 다른 사원보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젊다. 자성일 법회 때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물론 주교이신 원만원 전수님도 세속적인 나이는 종단 승직자 중에서는 소장파에 속한다. 그래서 그런지 교도와 승직자와의 어울림은 조금의 어색함 없이 자연스럽고 서원당 분위기는 항상 힘이 넘치는 활기찬 모습이다. 신중함과 겸손, 자연스러운 승직자와 교도사이의 조화, 활기차고 힘이 있어 보이는 분위기, 쉽게 아무 사원에서나 찾을 수 있는 그런 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천사는 그러한 것이 참만하다. 왜 그럴까? 법천사만 부처님의 특별한 가지(加持)를 받았어 일까? 물론 부처님의 은혜 엄청 많이 받았다. 하지만 처음 시복서원당에서 죽비를 치시던 청담, 연등관 두 스승님 그리고 상지화 스승님, 지금 죽비를 잡고 계시는 원만원 전수님, 시경 정사님, 그리고 법천사 신도회 회장 보살님,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법천사와 인연을 맺고 있는 수많은 교도들의 원력이 없었으면 오늘의 작지만 당당하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결코 초라하지 않는 전연밀교 도량 법천사를 생각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 여겨진다.

앞으로도 법천사에서 해야 할 일은 태산같지만 결코 서둘지 않겠다는 원만원 전수님은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굳이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을 쓰며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일상 생활에서 흔히 볼 수가 있다.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상황 자체를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꾸려면 내 마음부터 긍정적이고 선(善)하게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한다."

생활불교를 종단의 지표로 삼고있는 우리 총지중은 항상 대중과 모든 것을 같이 한다. 승직자와 교도가 하나요, 수행과 생활이 하나이며, 마침내 부처님과 내가 하나라는 불이사상(不二思想),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해야 하는 것들. 그것은 조화(調和)와 균형(均衡)이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다.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만원 전수님의 말처럼 먼저 내마음부터 바꾸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 인터뷰



- 약력
- 총기 20년 관음사 근무
- 총기 21년 법천사 주교임명
- 총기 23년 할미금 대인사 승서
- 총기 26년 통리원 교정부장 및 의원 임명
- 총기 28년 청정지 전수 승서

▶ 조금은 황당한 질문이지만 묻고 싶습니다. 불교란 무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불교란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깨달는다는 것은 수화공심이나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바꾼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게으른 마음을 부지런한 마음으로,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 사고를 가진 마음으로.

▶ 사원을 책임지는 주교로서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 었습니까. 글썽요 그냥 부처님이 하라 하시는 것만 하면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굳이 있다면... 사실 저는 법천사가 승직으로서 초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법천사 주교로 왔지만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웃음) 그때 저를 가장 많이 도와준 분이 부처님이요 그 다음으로 많이 도와준 분이 우리 법천사 교도들이었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참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때보다 더 어려울 때는 우리 교도가 어려울 때입니다. 가정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혹은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힘들어 할 때 주교로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없어 가슴이 아프고 그때가 너무 힘들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부처님께 그들의 아픔을 나에게도 나누어 주십사 하는 기도뿐입니다.

▶ 스승님의 그런 기도가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법천사 교도들에겐 말씀 해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중도(中道)라는 말을 무척 좋아합니다. 경전이나 종파 혹은 시대에 따라 약간씩 해석하지만 치우치지 아니하는 바른 도리라고 일반적으로 중도를 해석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집착이 없다는 것이고 집착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부처님 곁에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몸은 부처님 곁에서 진언을 외우고 결인을 하고 정진을 해도 마음에 집착을 두어 바르지 못한 재물을 탐하고 남을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십년공부 도로아미타불이죠. 칠시간정진, 자성일불공, 월초불공, 사십구일불공 그 모든 것이 마음속의 집착을 버리고자 하는 수행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불공에 임해야 진정한 진언밀교 수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나 불공중이나 항상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꼭 기억하고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몸은 항상 부처님 곁에 있지만 때때로 마음은 부처님 곁에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치우치지 않는 마음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